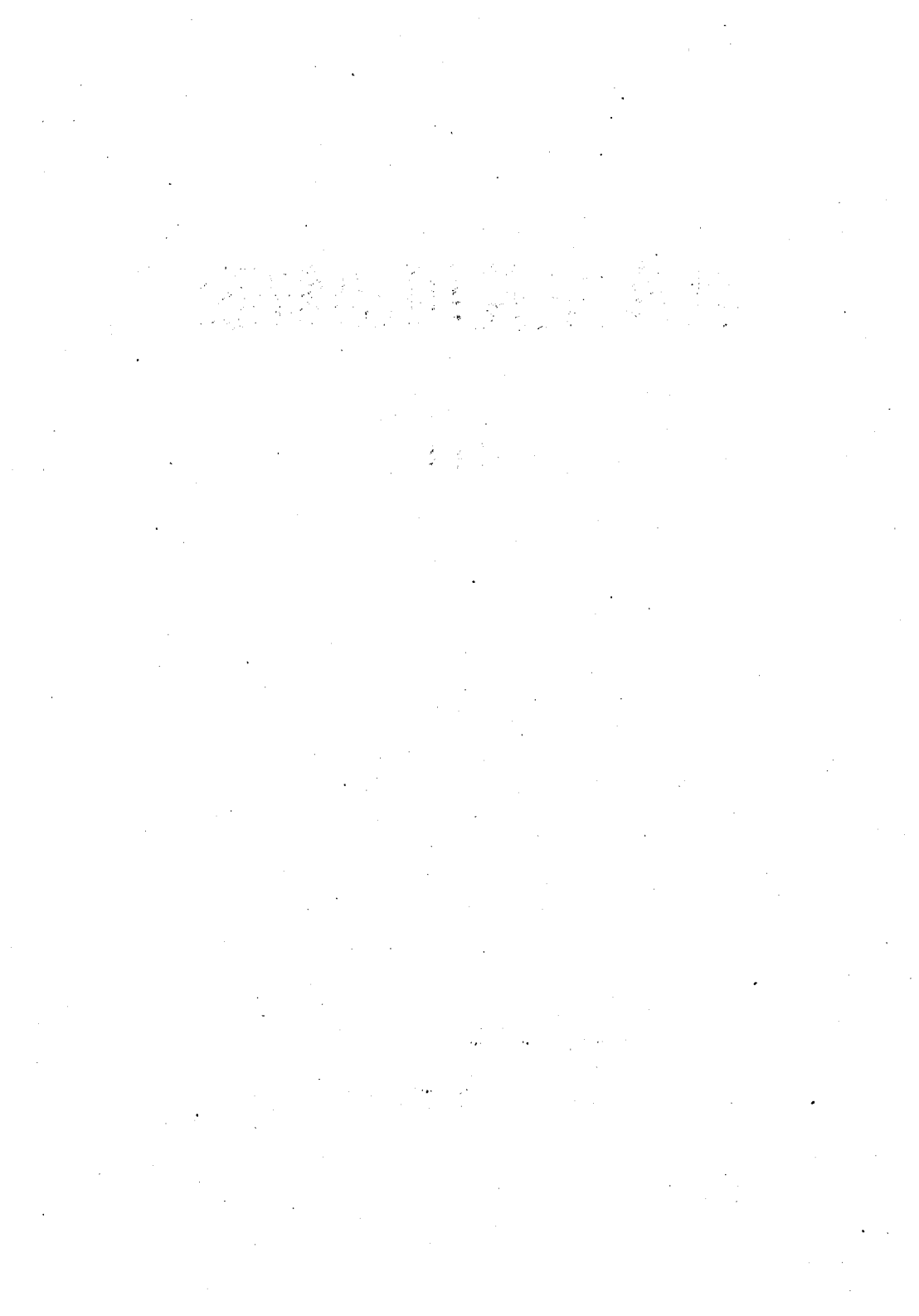


# 共產主義用語解説

1984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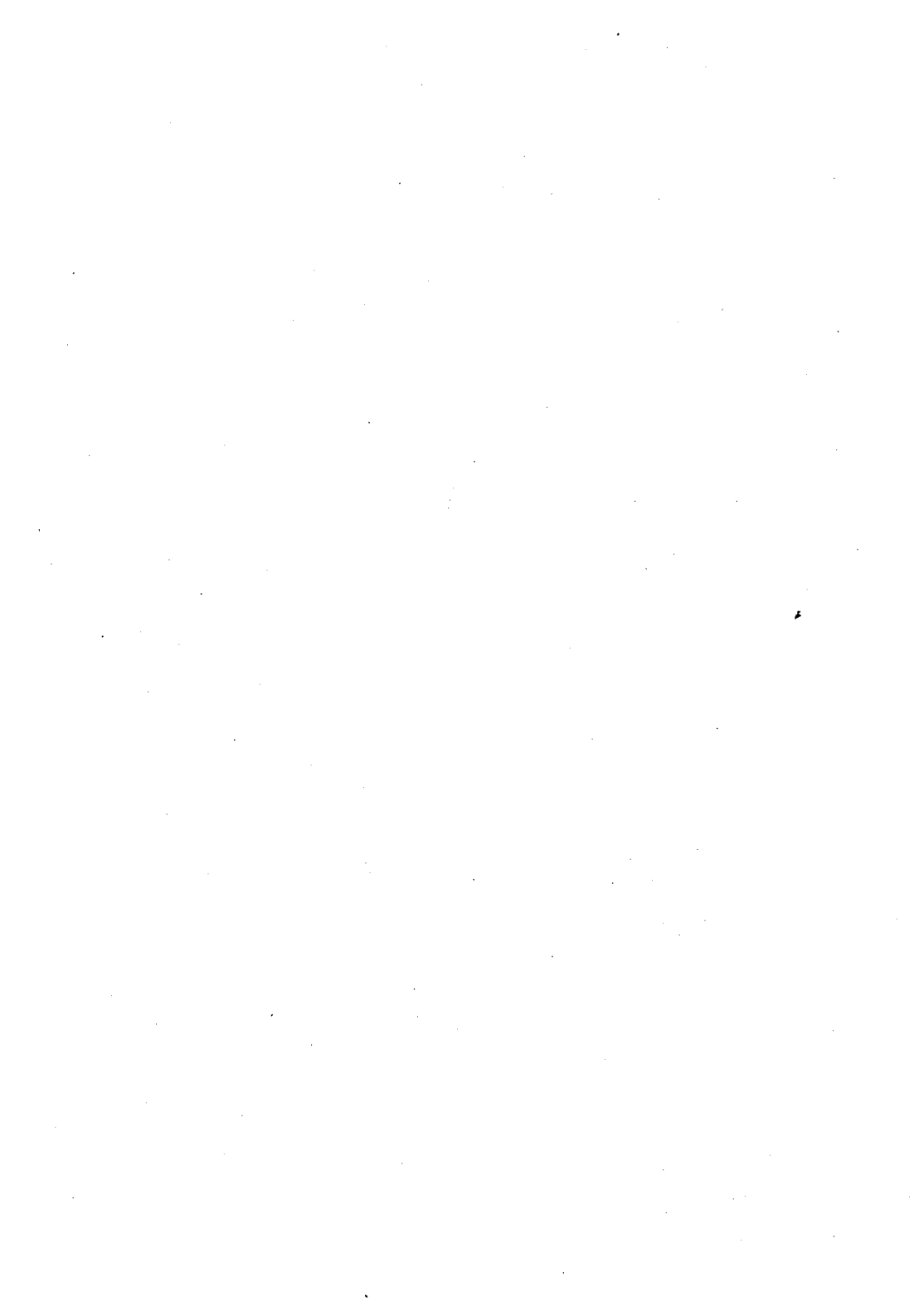


## 目 次

階級國家觀 .....	5
階級鬭爭論 .....	6
共產黨宣言 .....	7
共產主義社會 .....	9
空想的 社會主義 .....	12
教條主義 .....	12
네 프 .....	13
勞動價值說 .....	15
노멘끄라투라 .....	17
레닌主義 .....	18
마르크스主義 .....	21
毛澤東思想 .....	24
無政府主義 .....	26
民主社會主義 .....	27
發達한 社會主義社會 .....	30
辨證法的 唯物論 .....	31
블셰비키 .....	33
브레즈네프 獨트린 .....	34
브레즈네프憲法 .....	37
四個現代化 路線 .....	37

四大原則 .....	39
社會主義 .....	40
社會民主主義 .....	42
社會主義 인터내셔널 .....	44
소련共産黨 .....	46
소비에트 .....	47
슌호즈 .....	48
修正主義 .....	49
肅 清 .....	51
十月革命 .....	54
歷史決議 .....	55
永續革命論 .....	56
유로커뮤니즘 .....	57
唯物史觀 .....	60
이데올로기 .....	62
一國社會主義 .....	63
剩餘價値說 .....	64
資本主義 崩壞法則 .....	66
自主管理 社會主義 .....	68
前衛黨論 .....	70
全人民國家 .....	71
全體主義 .....	72

整風運動 .....	76
帝國主義論 .....	78
第1 인터내쇼날 .....	79
第2 인터내쇼날 .....	81
從屬理論 .....	83
中·蘇紛爭 .....	86
코민테른 .....	87
코민포름 .....	89
콜호즈 .....	90
平和共存 .....	92
프라하의 봄 .....	93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	94
프롤레타리아 暴力革命 .....	95



## ◇ 階級 國家 觀

共產主義 國家觀(階級國家觀)은 大別하여 ① 國家의 起源  
② 國家의 本質 그리고 ③ 國家의 目的 등의 要素로 構成  
되어 있다.

階級國家觀에 의하면, 社會에 階級이 발생하면서부터 국가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起源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국가  
의 本質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국가  
起源의 계기를 階級的인 搾取關係에서 찾게 되면 곧 國家의 本  
質을 階級的 搾取와 暴力的 抑壓의 手段으로 보게 된다. 그  
러므로 共產主義에서는 국가란 本質적으로 暴力的인 彈壓機構  
라고 斷定한다. 이러한 國家觀은 국가를 곧 惡으로 規定짓는  
다.

이러한 國家觀을 資本主義國家에 適用하면 資本主義國家는 ①  
經濟組織으로서는 勞動者로부터 剩餘價値를 搾取하기 위한 資  
本家の 營利的 機關이고 ② 政治組織으로서는 搾取의 過程을  
勞動者들의 反抗으로부터 守護하기 위한 暴力機關이 되는 것  
이다. 共產主義는 資本主義國家를 “ 프롤레타리아트를 支配하는  
부르조아지의 執行委員會에 불과하다 ” 고 비난한다.

共產主義 階級國家觀에서는 국가 본래의 모습인 ① 外部의  
敵으로부터 國民과 국가를 防衛하기 위한 防衛機構이며 ② 內  
부의 混亂으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한 治

安機構라는 超階級的인 國家觀은 無視된다.

階級國家觀으로부터 誘導되어 나온 것이 「國家 死滅論」이다. 즉 社會에서 階級이 消滅되면 국가도 死滅한다는 것이다. 社會의 階級은 私有財産制의 所産이기 때문에 私有財産制가 없으면 階級이 없어지고, 階級이 消滅되면 따라서 국가도 死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 階級 鬭爭論

「마르크스」에 의하면 “一定한 時代의 生産力은 이에 適應하는 一定한 生産關係를 가져왔고, 原始共同社會를 除外한다면 이 生産關係는 결국 搾取의 關係이며, 搾取의 出現은 社會를 階級的으로 分化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革命家인 「마르크스」는 過去의 역사를 단순히 설명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追求한 歷史의 發展法則은 階級鬭爭의 理論을 展開하기 위한 前提이며 土臺인 점에서만 生命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階級鬭爭은 결코 資本主義社會에서만 일어나는 새로운 現象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時代를 막론하고 지금까지의 人類社會의 歷史는 모두가 階級鬭爭의 歷史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階級鬭爭論은 歷史的 事實과 背馳되는 점이 너무나 많다. 封建社會는 階級鬭爭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



며 資本主義社會 역시 階級鬭爭의 結果로 성립된 것이 아니다.

물론 歷史的인 투쟁은 階級的 利益을 追求하는데서 일어나기도 하겠으나 동시에 民族的, 宗教的, 思想的 原因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社會의 成員을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2大階級으로 구분하고 兩階級은 각각 自己의 階級的 利益을 토대로 한 階級意識의 衝動을 받아 敵對階級에 대하여 투쟁을 展開하며 이 투쟁이 共產主義社會를 실현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期待하였으나 人間은 經濟的 利害關係에 있어서나 意識에 있어서나 어떠한 階級에 간단히 團結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마르크스」死後에 급속히 成長한 中産階級の 擡頭는 階級意識을 극히 애매하게 만들었는데 더우기 國境을 달리할 때 勞動者를 階級意識으로 統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兩次 世界大戰을 통하여 볼 때, 勞動階級은 民族主義的 感情을 받게되고 自己 祖國의 安全을 最高의 利益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民族主義가 階級鬭爭의 範圍와 性格을 制約한다는 증거라 하겠다. (「唯物史觀」참조)

#### ◇ 共 産 黨 宣 言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의하여 쓰여진 소위 科學的社

會主義의 최초의 綱領的 文書이다.

1848年 2月 共產主義者同盟의 綱領으로서 런던에서 出版되었다. “하나의 怪物(妖怪 또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 共產主義라고 하는 怪物이”로 시작되는 本書는

① 第1章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② 第2章 「프롤레타리아」와 共產主義者

③ 第3章 社會主義的 및 共產主義的 文獻

④ 第4章 各種 反對黨에 대한 共產主義者의 立場 등의 內容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社會의 역사는 階級鬭爭의 역사였다”고 하는 見地에서, 부르조아革命 후의 生産力의 巨大한 成長이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2大陣營의 對立을 生成시켰고, 프롤레타리아의 鬭爭과 革命만이 生産力을 보다 發展시켜 被抑壓者 全體를 解放한다고 記述하고 共產主義者의 任務를 명백히 했다.

共產黨 宣言은 그 末尾에서 “共產主義者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社會秩序를 暴力的으로 顛覆하는 것에 의하여서만, 自己들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宣言한다. 支配階級으로 하여금 共產主義革命 앞에 戰慄케 하라.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革命에서 쇠사슬(鐵鎖)以外에 잃을 것은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얻는 것은 全世界이다. 「萬國의 프롤레타리아트여 團結하라.」”라는 말로 結論을 맺었다.

共産黨宣言은 階級鬭爭과 프롤레타리아트의 勝利를 強調하고 煽動했으나 各國의 勞動者는 “萬國의 勞動者여 團結하라”는 口號에 階級的으로 쏠리지는 않았다. 階級鬭爭이나 프롤레타리아獨裁 등은 勞動者들의 思想이나 所望이 아니라, 過激한 革命家들의 政權奪取를 위한 戰術이었을 뿐이다.

이 共産黨宣言은 世界 최초의 共産黨 組織에 해당하는 共産主義者同盟(1947年 創立)의 行動綱領으로 出版되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共産主義者들의 行動方法·行動方向·行動目標의 指針書처럼 되어, 하나의 共産主義經典과 같이 되어있다.

※ 「부르조아지」란 近代의 資本家階級 즉, 社會的 生産手段의 所有者이며 賃金勞動者의 雇傭主人 階級을 말한다.

※ 「프롤레타리아트」란 自己의 生産手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生活을 위하여 그 勞動力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近代의 賃金勞動者階級을 말한다.

#### ◇ 共産主義社會

生産手段, 生産物의 共同所有와 平等한 消費에 基礎한 無階級社會의 樹立을 目標로 한 思想과 運動이 共産主義이고, 그와 같은 運動의 成果로서 成立하는 社會體制를 共産主義社會라 부른다.

近代 共産主義思想은 資本主義社會를 根本的이고 全面的으로

批判한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의하여 確立되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共產主義는 「마르크스」主義와 同義語가 된다. 科學的 社會主義 思想으로서의 共產主義는 空想的 社會主義나 無政府主義 등의 批判을 통하여 創造된 “프롤레타리아트의 解放의 諸條件에 관한 學說”( 共產黨宣言 )이다.

共產主義의 思想과 運動은 1871年의 「파리 코뮌」에서 體制로서 처음으로 實現되었으나 短命으로 끝났다.

그후 1917年 러시아 十月革命의 成功에 의하여 共產主義的 世界革命의 端緒가 열려, 第2次 世界大戰後 共產主義를 目標로 하는 社會體制가 적지않게 成立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資本主義社會의 止揚의 結果 成立하는 社會를 廣義의 共產主義社會라 하고, 그 낮은 段階를 社會主義社會, 높은 段階를 共產主義社會라고 하는 用法이 一般化되었다.

狹義의 共產主義社會는 모든 社會成員에 남아 돌아가는 財貨와 文化財를 保障할 수 있는 높은 水準의 生産力이 實現되고 生産手段은 전부 全人民의 所有로 되어 階級도 社會的 差別도 없고 모든 사람의 完全한 社會的 平等이 達成되어 勞動이 第1次的 生活欲求가 되어 “각자는 能力에 따라 각자에게는 必要에 따라.”라는 原則이 實現될 수 있는 社會를 의미한다.

즉, 社會主義社會에서 보다는, 보다 높은 生産力의 發展水準이 勞動生産性的 無限한 向上에 따라 達成되어 生産力의 飛

躍的 發展의 結果,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의 두 種類의 所有 形態( 國家的 所有와 協同組合의 所有 )는 점차로 單一의 共產主義의인 全人民的인 社會的 所有에로 成長 轉換한다. 거기서는 社會的 分業은 근본적 變化를 招來하고 精神勞動과 肉體勞動間의 本질적 차이, 都市와 農村, 勞動者와 農民, 知識人間의 本질적 차이는 除去된다.

이상의 經濟過程에 對應하여 國家는 階級抑壓이라는 任務를 完全히 終了함과 同時에 社會 및 經濟를 管理하는 任務도 終了하고 死滅해 간다.

이와 같은 共產主義社會는 理想으로서는 어쨌던간에 實際로 達成될 수 있는가의 與否, 또한 物質的 關心의 原則에 의하여 勞動生産性を 向上시키는 것 만으로, 人間의 精神的 側面을 改造하지 않고서도 共產主義社會를 實現할 수 있겠는가의 與否도 큰 疑問이 되고있다.

世界 최초의 共產革命을 이룩한 소련은 物質的 生産力의 發展을 軸으로 하여 共產主義社會의 실현을 향하여 近 70年을 지내왔으나 共產主義社會로부터는 크게 동떨어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소련이 그럴진대, 餘他 共產國家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

「유토피아」( 아무 곳에도 없다는 뜻 )를 「空想的」이라고 하여 「科學的」으로 만들었다는 共產主義社會도 결국은 「유토피아」가 되고 말았다.

“ 각자는 能力에 따라, 각자에게는 必要에 따라 ” 라는 共產主義社會는 共產黨이 執權하기 위한 名分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證明이 되고 있다.

#### ◇ 空想的 社會主義

「엔겔스」가 「마르크스」의 社會主義思想을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부르고 그와 對比해서 그 以前의 社會主義思想을 “空想的 社會主義”라고 부르는데서부터 이 말이 널리 使用되게 되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19世紀 初葉의 社會主義思想 특히 「로버트·오웬」, 「쌍·시몬」, 「샤르르·푸리에」에 의하여 代表되어지는 社會主義思想을 말한다.

그들 사이에서도 內容은 各色이지만 굳이 共通點을 든다면 人道主義 觀點에 서서 未來의 理想社會를 그려서 提示한 것이다. 그것이 「空想的」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그들이 “어떤 普遍的 價値에 基礎하여 將來社會를 主觀的으로 構想했고, 資本主義社會의 分析을 통하여 社會主義를 實現하는 主體와 手段을 發見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 ◇ 教 條 主 義

教條主義의 一般的 特徵은 “科學的 分析에 基礎하여 「마

르크스·레닌」主義의 原則을 具體的인 歷史的 情勢에 創造的으로 適用하는 것을 拒否하고, 「具體的인 情勢의 研究를 引用文으로 代替」(1957年 모스크바 宣言)하는데 있다.

즉, 各國의 具體的, 歷史的 情勢를 無視하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毛澤東으로부터의 引用文을 가지고 그대로 革命運動의 方針으로 하던가 소련共産黨이나 中國共産黨의 經驗路線, 主張을 盲信하여 그것들을 機械的·無批判的으로 模倣하는 偏向"을 指稱한다.

“만일 教條主義가 主要한 潮流로 되면 共産黨을 廣範한 勞動者階層으로부터 孤立시키고, 革命鬪爭에서 主觀主義나 極左의 冒險的 行爲로 되어, 情勢의 變化와 새로운 經驗을 適時에 올바르게 評價하는 것을 妨害하며, 帝國主義 및 各國 反動派와 싸우는 勞動者階級 및 全民主勢力의 革命鬪爭에 대하여 修正主義와 함께 크나큰 損害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 ◇ 네 프 (新經濟政策)

1921年3月 「러시아共産黨 불셰비키」(오늘의 소련共産黨) 第10次 全黨大會에서 採擇한 經濟政策을 말한다.

「네프」의 主要內容은

- ① 食糧 徵發을 廢止하고 現物稅(地稅)를 新設
- ② 外國 鑛工業商社에게 私權 認定

- ③ 小規模 私營工業 許可
- ④ 都市에 小規模 商業 許可 등이다.

즉, 政府 統制下에 資本主義 要素를 部分的으로 導入하고 私 企業 經營을 認定하는 經濟戰術上의 後退였다.

「네프」에로의 轉換이 不可避했던 理由로서는 戰時共産體制 가 물고 온 經濟的 파탄의 結果

- ① 農民의 反撥이 極甚해지고
  - ② 페데르그라드(오늘의 레닌그라드 — 當時 首都)에서의 反소비에트 스트라이크가 擴大一路에 있었고,
  - ③ 全國을 掩襲한 饑饉에 겹쳐서
  - ④ 콜레라·티브스 등 傳染病이 蔓延하고
  - ⑤ 黨員들의 「勞動者國家」에 대한 失望 등을 들 수 있
- 다.

이 「네프」는 1928년까지 繼續됨으로써 共産革命 以前의 러시아 經濟水準까지 간신히 회복시켰다고 한다.

#### ※ 戰時 共産體制

러시아 10月革命 후 11月末에 러시아 歷史上 最初이자 最後인 秘密·普通·平等·直接選舉를 實施한 結果, 投票者 4,170 萬名中 「볼셰비키」의 得票數는 980 萬票로서 23%에 불과했다.

1918年1月18日에 召集된 憲法制定會議를 武力으로 解散시



키고, 憲法起草權을 暴力으로 強奪한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獨裁政權 樹立”을 宣布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獨裁”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獨裁”로 變했다.

그후 同年 6月11日에 「貧農委員會」를 創設하여, 食糧을 配給制로 하고 農民으로부터 剩餘農産物을 沒收했으며, 同年 6月28日에는 工場, 商業, 金融機關의 國有化 措置를 發表하여 生産과 分配를 國家 手中에 集中시켰다. 이것이 1921年까지 繼續된 戰時共產體制 時期이다.

#### ◇ 勞 動 價 值 說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必然的으로 滅亡한다는 理論을 「勞動價値說」과 「剩餘價値說」을 통해서 論證하려고 했다.

「마르크스」는 勞動이야 말로 모든 商品이 價値의 原因이요, 價値를 形成하는 實質이요, 價値를 測定하는 尺度라고 說明한다.

즉, 어떤 商品이 價値가 있다는 것은 사람의 勞動力이 들어갔기 때문이며 이 勞動力의 結晶이 곧 商品의 價値요, 따라서 한 商品의 價値의 大小는 그것을 만드는데 消費된 勞動力의 大小에 따라 決定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勞動價値說은 經濟理論으로서 이미 科學性을 잃은 埋沒된 理論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勞動價値理論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商品은 모두 人間의 勞動의 生産物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나 事實에 있어서는 아무런 勞動力도 加하지 않은 價値있는 商品이 天然 資源을 위시하여 얼마든지 있다.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이 成立될 수 없는 根本的인 理由는, 勞動이 商品의 價値를 左右하는 重要的 要素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經濟的 財貨의 價値가 오직 勞動에 의해서만 決定되고 形成된다고 主張하는데 있다. 그러나 價値는 勞動에서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組織에서도 나오며, 새로운 發明에서도 생겨나며, 資本에서도 나오며, 機械의 效率的인 使用에서도 나오고, 市場과 生産過程을 잘 整備하는데서도 나온다.

勞動價値說이 經濟理論으로서는 도저히 首肯할 수 없는 短點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것은 이 理論이 價値의 原因을 說明할 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商品의 價値는 勞動者의 피와 땀의 所産”이라는 道德的인 要素를 提示하는 점이라 하겠다.

勞動價値說이 어떤 政治的 效果(革命煽動)를 노리는 宣傳 資料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이미 經濟學說이 아니라 한낱 政治的인 宣傳口號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 노 멘 끄 라 두 라

라틴語에서 派生된 러시아語로서, 본래는 「特權을 갖는 幹部 職位名簿」라는 의미이나 보다 擴大解釋하여, 그 特權的 地位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上意下達하는 體制全般을 「노멘끄라뚜라」라고 한다.

이 「노멘끄라뚜라」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련의 경우, 그 家族을 포함하여 약 300萬名이며 소련 全人口의 1.2%에 해당한다. 어떤 社會階層까지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우나 大幅으로 늘려서 보더라도 약 600萬名 즉 全勞動人口의 5%에 불과하다.

이 「노멘끄라뚜라」가 되면 特權이 賦與되어 高所得이 되고 高級아파트와 別莊이 配當된다. 老後에는 「重要性을 갖는 年金受給者」라 하여 高額年金 受領자가 된다.

「노멘끄라뚜라」의 地位 그 자체는 世襲이 아니나 이 그룹에의 歸屬自體는 世襲化되어 가고 있다. 즉 「노멘끄라뚜라」는 自家再生産이 되어가고 있다.

### ※ 네 뽀 짜 즘

러시아語로 「親族 또는 族閥登用」의 뜻이다. 소련이나 中공을 비롯하여 共產圈 諸國에서는 黨이나 國家의 幹部가 자기의 親族을 要職에 補職하는 예가 많다.(北韓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본래 共產圈 諸國에서는 幹部의 登用은 「노멘끄라뚜라」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으나, 實力이나 能力보다도 血緣을 우선 시키는 「네뽀찌즘」의 弊害가 民衆의 怨聲을 사고 있다. 共產黨 特權階級은 人民에게 耐乏生活을 強要하는 한편, 特權을 濫用하여 親族의 뒷門入學, 뒷門留學, 뒷門就職, 特權昇進, 任命 등을 하고 있다.

#### ◇ 레닌 주의

「레닌」은 1870年 러시아 볼가江沿岸에서 出生하여 1924年에 死亡하였다. 그는 그의 형이 1887年 「나로드니끼」의 一員으로 짜리暗殺事件에 加擔하였다가 處刑되었을 때, 심한 衝擊을 받았다. 그는 「마르크스」主義者가 되기 전에 이미 革命運動에 加擔했었다.

「레닌」은 實踐的인 革命家였다. 그도 러시아革命의 第1目標을 짜리專制主義의 打倒에 두었으나, 이것을 위해서는 러시아 人口의 壓倒的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農民의 支持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農民들은 격분하여 산발적인 暴動은 일으킬 수 있어도 革命을 遂行할 能力은 없었다. 여기서 農民의 反抗的 에너지를 「짜리즘」打倒의 革命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同盟하여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組織

의인 指導勢力이 필요하였다. 「레닌」이 이 指導勢力으로 指  
目한 것이 少數의 프롤레타리아였다. 「레닌」은 數적으로 우  
세한 農民의 利用價値에 착안했던 것인데, 이러한 觀點을 定  
式化한 것이 그의 「勞農同盟」戰略이다.

「레닌」은 1895년에 약 20개의 「마르크스」主義 그룹을  
統合하여 「勞動階級解放同盟」을 組織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체  
포되어 시베리아로 流配되었다. 그가 流刑生活을 하는중 餘他  
都市들에서 유사한 團體들이 組織되었다. 1898년에는 9명의  
代表가 모여 「러시아社會民主勞動黨」의 創建을 宣言했다. 이  
것이 오늘날의 소련共產黨의 母體였다.

1904年5月 亡命地 스위스에서 출판된 「1步前進·2步後  
退」에서 「레닌」은 “黨은 職業革命家로 組織된 프롤레타리  
아트의 前衛라야 하며, 黨組織의 強化, 黨規律에 대한 복종만  
이 權力 獲得을 위한 鬪爭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唯一한 武  
器”라는 것을 強調하고, 「볼셰비키」들이 獨自의 黨을 結成  
하고 그 이름을 「러시아社會民主勞動黨볼셰비키」라고 붙였다.

「레닌」主義는 革命家の 政治活動중에서 나온 産物로서 “革  
命의 勝利를 위한 戰術的 요청에서 構成된 革命의 理論”이  
다.

「레닌」은 「나로드니끼」로부터

① 旺盛한 革命的 鬪志와

- ② 農民重視 思想과
- ③ 職業革命家의 엘리트主義와
- ④ 戰鬪的 無神論의 一部를 吸收했고,

「마르크스」로부터

- ① 러시아에서의 資本主義的 發展의 必然性(唯物史觀)과
- ② 辨證法的 唯物論과
- ③ 프롤레타리아트의 메시아적 使命을 계승했다. 즉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의 러시아化로 볼 수 있다. 革命思想에 있어서 「마르크스」는 “共產主義革命은 壓倒的 多數의 利益을 위한 壓倒的 多數의 自發的 運動”에 기대했으나, 「레닌」은 “革命의 成功은 資本主義의 自然崩壞를 기다리는데 있지 않고, 戰鬪的인 攻撃을 가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 ※ 나로드니끼

러시아語로 人民主義者라는 의미이다. 1860年代의 러시아에서 최초의 革命的 集團으로서 생겨났다. 1861年の 農民解放에 의해서도 解放되지 못했던 러시아 農民에게 동정한 青年 知識層은 「브·나로드」(人民속으로)를 口號로 農民啓蒙運動을 展開했다.

「나로드니끼」들은 러시아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발전이나 勞働者階級의 革命的 役割 등은 理解하지 못하고, 인테리겐차

를 指導力으로 하고 農民을 주요한 革命勢力으로 看做했다.  
1870年代에는 無政府主義의 影響을 받아 「차리즘」에 대한 戰術로서 個人的 테러를 사용하여 1881년에는 짜리(皇帝)를 暗殺했다.

#### ◇ 마르크스主義

私有財産制度로부터 야기되는 ぜ반 社會的, 道德的인 惡을 意識하고 財産의 共同所有를 基반으로 하여 平等社會를 實現하고자 하는 共產主義의 소박한 理想은 벌써 人間의 政治的 思索이 시작될 때부터 惝々한 것으로서 그 淵源은 멀리 그리스 時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古典的인 소박한 共產主義的 概念은 近代的인 共產主義와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近代的 共產主義는 「마르크스」主義로부터 시작된다.

「칼·마르크스」는 1818年 獨逸에서 태어나 188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生存하고 活動하던 19世紀는, 産業革命과 佛蘭西革命의 여파로 말미암아 歐羅巴가 아직 風浪속에서 흔들리던 狂亂의 時代였다.

또한 이 時代는 現實에 만족치 못하는 민감한 思想家들과 壓政에 시달리는 大衆들이 새로운 社會建設의 原理와 方法을 摸索하던 苦悶의 時代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처음에는 당시의 어두운 現實에 분격하여 急進的 自由主義者로서 러시아의 封建的 特權階級에 抗拒하다가 그후에는 資本主義에 대하여 反旗를 들었던 것이다.

國民의 民主的 權利가 아직 保障되지 못했던 당시에 있어서, 不正한 社會 現實을 打開하기 위하여 과격한 젊은이들이 택할 수 있었던 方案은 자연히 당시에 한창 盛行하던 階級 鬪爭(暴力革命)이었다. 말하자면 19世紀의 歐羅巴는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政治的, 社會的 條件과 思想的 분위기를 提供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르크스」도 무릇 다른 思想家나 革命家와 마찬가지로 時代的인 人物이었던 것이며, 그의 理論과 實踐도 時代性的 制約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構成한 理論的 構造에는 어느 정도 예리한 分析과 批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는 事實과 事實 아닌 誤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가장 反抗的인 革命家가 가지고 있는 「獨斷性」과 「排他性」을 가지고 있으며, 「合目的」인 「誇張表現」과 「偏見」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못지않게 權力에 대한 「支配慾」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마르크스」主義는 어떠한 時代에나 어떠한 社會에도 그대로 適用할 수 있는 普遍的인 진리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생존했던 당시의 環境에서 部分的으로 適用될 수 있



는 한개의 時代的 產物인 것이다.

「마르크스」主義는 構造的인 面에서 볼 때, ① 哲學과 ② 政治經濟學과 ③ 政治·社會思想의 3個部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哲學은 獨逸古典哲學을 계승 발전시켜서 「辨證法的 唯物論」의 世界觀을 形成시켰고 이것을 다시 史的唯物論 (唯物史觀)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② 政治經濟學은 英國의 正統派 經濟學에서 취한 것으로서 이 政治經濟學의 核心은 勞動價値說, 剩餘價値說을 土臺로한 資本主義社會의 崩壞法則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③ 政治·社會思想은 階級國家觀과 프롤레타리아革命의 理論을 중심으로 展開시킨 것인데 이것은 주로 佛蘭西의 社會主義思想의 擴大的 계승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튼 「마르크스」主義는 國際的인 所產으로서, 歐羅巴의 3大 文明國家의 思想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合流 形成되어서 하나의 「마르크스」적인 獨立된 思想으로 形成 되었다고 하겠다.

「마르크스」의 學說은 資本主義의 自由主義 段階에 형성된 것으로서, 帝國主義 段階의 「마르크스」主義를 確立한 것은 「레닌」이었다. 이 「레닌」이 발전시킨 部分을 포함한 「마르크스」主義를 「마르크스·레닌」主義라 하겠다.

## ◇ 毛澤東 思想

毛澤東思想은 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 ② 繼續革命論과 政治優先主義, ③ 農民 중심의 革命的 群衆路線으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

中國共產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思想的 武器로 하여 中國社會를 共產主義社會로 改造할 것을 궁극적 目標로 하는 革命政黨으로 발전해 왔다. 毛澤東은 中國의 歷史的 특수성을 植民地的·半植民地的·半封建的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的 의미에서의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위한 古典的 前提條件을 결여하고, 政治的으로는 취약했던 中國大陸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이 直面한 가장 중요한 問題는 社會主義革命의 目標과 民族解放革命의 目標간의 時差에 있었다.

### ② 繼續革命論과 政治優先主義

毛澤東은 中國이 지니는 여건의 특수성에서 革命段階를 新民主主義革命段階와, 社會主義革命段階의 2段階革命으로 보았다. 第1段階인 新民主主義革命은 共產黨의 指導下에 聯合獨裁를 實施하고 對內的으로는 反封建·反官僚主義를 對外的으로는 反帝國主義·反植民主義 鬭爭을 展開하는 단계이며 第2段階인 社會主義革命은 社會主義的 개조와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위한 단계라고 한다.

新民主主義 文化의 특색은 政治에 대한 文化의 從屬性·革命性·大衆性에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政治에 대한 文化의 從屬性 즉 政治優先主義이다. 政治優先主義는 理論上 “下部構造의 變革에 따라 上部構造의 필연적인 變革을 가져온다”는 正統적인 「마르크스」主義의 立場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 ③ 農民 중심의 革命的 群衆路線

毛澤東思想중에서 가장 特徵적인 요소의 하나는 農民 중심의 思想이다. 그는 國民黨이 軍事的으로 강하고 政治的으로 약한 반면 共產黨은 軍事的으로 약하고 政治的으로 강점을 지닌다고 判斷하여 農民(農村) 중심의 革命路線을 택했다.

이러한 毛澤東思想의 戰略的 前提는 空間, 時間, 意志의 統一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毛澤東은 근거지를 마련하여 生存을 위한 空間을 確保하는 것이 곧 軍事問題이며, 時間을 벌어서 革命組織을 強化하고, 團結, 勝利, 犧牲精神을 고취시켜 時間과 意志를 統合하는 것이 곧 政治問題라고 보았다.

따라서 毛澤東의 戰略概念에 있어서는 西歐式 物量 중심의 産業動員 대신에 政治動員을 중요시하였다. 이것이 政治的으로 統一戰線으로, 軍事的으로는 人海戰術로 具體化되어 나타났다.

## ◇ 無政府主義

國家내지 政府는 소망하는 社會의 成立에 있어서 無用한 것일 뿐아니라 有害롭다고 하는 주장이다.

國家내지 政府는 인간을 敵對化하고 分裂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人間 상호간의 友愛나 人情이나 扶助의 能力을 前提로 하여, 社會問題의 해결을 自發的인 社會形成에 두고자 한다.

이것은 私有制를 批判하고 共有制를 찬양하는 경우가 많다. 無政府主義는 ①新社會의 建設을 別천지에서 구해 보고자 하는 「유토피아」志向的인 것도 있고 ②「부르동」과 같이 勞動者聯合에 의하여 産業社會를 再構成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③「크로포토킨」과 같이 農村的 상호부조의 再建을 생각한 것도 있고 ④「빠꾸닌」과 같이 國家의 暴力的 전복을 目標로 한 것 등 各색의 주장이 있으나, “社會改革을 政黨내지 中央集權的 組織의 形成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拒否”하는 共通點이 있다.

그중 널리 알려진 無政府主義者는 러시아의 「미카일·빠꾸닌」이며, 그는 大衆의 暴力에 의하여 政治權力을 타파하려고 생각한 無政府主義的 共產主義者였다. 「빠꾸닌」은 國家權力을 타파하면 私有財産制度는 자동적으로 崩壞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르크스」와 대립했었다.

## ◇ 民主社會主義

社會主義의 역사에는 우여곡절이 있으나, 現代에 있어서는 世界의 非共產主義的 社會主義者는 자기 자신의 思想을 民主主義的 社會主義(약칭 民主社會主義)라고 부른다.

이 말은 19世紀末 이미 「베른슈타인」이 修正主義를 제창할 때 그 著書속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930年代의 英國社會主義의 文獻에서도 가끔 사용되고 있으나, 一般化한 것은 1951年 社會主義 인터내셔널이 그 發言속에서 자기의 思想을 民主社會主義라고 칭한 때 부터이다.

그 속에는 「웨이안」主義에서 온 흐름과 「베른슈타인」主義에서 온 흐름이 있으며 그 說明方法도 기초적 哲學의 여하에 따라 각각 다르다. 그 특색을 종래의 「마르크스」적 社會主義와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역사의 法則에 따라 資本主義 崩壞後에 결점이 없는 완전한 社會가 現實世界에 필연적으로 도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人間 能力의 최고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社會的 條件을 서서히 제거해 가는 人間의 努力에 기초를 둔 휴머니즘적인 思考方式에 입각하고 있다.

② 言論, 結社, 集會 自由의 최대한 보장과 함께 그와 같은 自由 위에 입각한 議會制民主主義의 確立을 기도하여 議會內에서 多數를 制壓하는 것에 의하여 改良政策을 행한다.

③ 모든 生産手段의 私有的 廢止 및 指令經濟에 반대함과 동시에, 私有財産 絶對不可侵의 自由經濟에도 반대한다. 産業의 소유형태에서는 國有·公共團體 소유 및 私有 등 각종 형태의 共存을 認定함과 더불어 混合經濟型的 經濟體制를 주장한다.

④ 社會保障制度를 충실히 하여 생활의 불안정에서 생기는 불행의 條件을 제거함과 동시에, 財政的 方法에 의하여 富 및 소유의 불평등을 가능한 限 輕減한다.

⑤ 平和維持의 方法으로서는 世界國家의 建設에 노력하면서도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國際聯合 및 기타의 地域集團 安全保障體制를 강화하고, 자국의 防衛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防衛力만을 유지한다.

또한 社會民主主義와 民主社會主義라는 용어상의 구별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나 전자는 「運動」을 지칭할 때, 후자는 「思想」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한다.

※ 「바드·고데스부르크 綱領」

獨逸社會民主黨이 1959年 11月 「바드·고데스부르크」臨時大會에서 採擇한 새로운 基本綱領이다.

第2次 大戰後 西獨經濟의 기적적 부흥과 아데나워外交의 成功속에 고립과 정체에 빠졌던 獨逸社會民主黨이 民主的社會主義의 立場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오늘날의 政權黨으로서

의 길을 트게 한 記念할만한 綱領이다. 그것은

- ① 國家의 積極적 당사자로서의 勞動者階級の 승인
- ② 思想의 多元性(따라서 반드시 「마르크스」主義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 ③ 國防의 肯定과 天主教와의 화해
- ④ 市場經濟의 승인과 公的介入 및 생산단위에 있어서의 「共同決定」에 의한 그 補完을 네개의 基樁(支柱)으로 하고 있으며 종래의 전통적인 反政府로부터 政權을 擔當할 수 있는 現實的인 國民政黨에로의 전환점을 이룬 것이다.

#### ※ 「韃靼」社會主義

1884年에 창립된 英國의 民主的 社會主義者들의 모임인 「韃靼」協會가 展開한 民主社會主義의 理論을 말한다. 協會의 代表者는 「시드니·웨프」夫妻와 「버나드·쇼」 등이었다.

「韃靼」이란 이름은 「한니발」과의 로마攻防戰에서 少數兵力으로 持久戰을 펴 승리한 로마의 유명한 將軍「화비우스」에서 유래한다. 「韃靼」에 모인 民主社會主義者들은 社會主義社會의 實現이라는 大目的을 暴力革命 등에 의하여 一舉에 實現하고자 하는 생각을 排斥하고, 「화비우스」의 古事를 敎訓으로 汲진적으로 議會制 民主主義의 方法에 의하여 進行하려고 생각했다.

「웨이안」協會는 勞動組合會議·獨立勞動黨과 함께 英國勞動黨의 창립에 참가하여 勞動黨을 勞動組合主義에서 民主社會主義으로 脫皮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런 의미에서 「웨이안」主義는 오늘날의 民主社會主義의 하나의 源流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 發達한 社會主義社會

소련의 新憲法 前文에 등장한 「발달한 社會主義社會」라는 用語는, 1977年 3月의 第24次 黨大會 때, 「브레즈네프」報告에서 사용된 이래 소련과 東歐의 社會主義 諸國에서 社會主義의 특정한 발전단계를 지칭하는 用語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廣義의 共產主義社會는

- ①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로의 過渡期( 프롤레타리아 執權期)
- ② 발달한 社會主義의 建設期( 프롤레타리아 執權에서 全人民國家에로의 移行期)
- ③ 발달한 社會主義( 全人民國家期)
- ④ 共產主義( 國家의 死滅期)의 4 단계로 구분되고, 이 구분을 적용하여 자국의 발전단계를 規定하고 있다.

中共에 있어서도 1976年 毛澤東死後 社會主義理論의 再檢討가 추진되고 있으며 1949年 中共建國後의 中共社會를 ①



過渡期 ② 발달하지 못한 社會主義 ③ 발달한 社會主義 ④ 共產主義의 4 단계로 區分하고, 現在의 中共은 두번째 단계인 발달하지 못한 社會主義段階에 있다고 하는 설이 등장하고 있다.

#### ◇ 辨證法的 唯物論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世界觀이며, 哲學的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마르크스」主義 哲學은 “革命的 프롤레타리아트의 世界觀이며 社會主義 — 共產主義를 위한 鬪爭의 武器”라고 한다.

##### ① 量的 變化의 質的 變化에로의 이행의 法則

“量的 變化가 質的 變化에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약이 요구된다. 飛躍이란 서서히 변화하던 量的 變化가 일단 中斷되고 급속히 한 질적 상태에서 다른 질적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資本主義社會는 오직 飛躍 즉, 革命을 통해서만 社會主義社會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 共產革命을 合理化하는 法則이다 )

##### ② 對立物의 統一과 鬪爭의 法則

“어떤 事物과 現象이든 간에 거기에는 서로 대립되는 側面들, 대립되는 힘들, 대립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런데 대립물은 서로 鬪爭하며 排斥한다”는 것이며, “資本主義社會에서 勞

動階級과 資本家階級은 발생한 시초부터 끊임없이 치열한 鬪爭을 하여 왔으며 그것은 그들간에 妥協할 수 없는 關係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대립물은 "서로 妥協하는 方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鬪爭을 통하여서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극복하는 方法으로써만 解決된다"고 한다.(階級鬪爭을 合理化하는 法則이다)

※ 「敵對的 矛盾」이란 利益關係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社會勢力·階級들간에 存在하는 非妥協的 矛盾을 말하며 革命的 方法에 의하여서만 解決된다"고 하며, 「非敵對的 矛盾」이란 근본적인 利害關係에서는 일치하는 階級·勢力들간에 存在하는 矛盾을 말하며 社會主義社會의 전형적 모순인 勞動者와 農民, 낡은 것과 새 것 등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될 수 있는 모순"이라고 한다.

### ③ 否定的 否定的 法則

"모든 事物은 자체의 낡은 것과 새 것과의 鬪爭에서 새 것이 낡은 것을 극복하고 否定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는 것이며, "事物 발전의 한 週期는 한번의 否定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再次的 否定 즉, 「否定的 否定」을 거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人類社會 발전과정에서 연결시켜서 "최초의 無階級社會인 原始共同社會는 階級社會에 의하여 부정되었고, 최후의 階級社會인 資本主義社會는 자체모순으로 社會主義(共產主義)社會에 의하여 否定된다"는 것이다.(資本主

義 沒落과 共產主義 도래의 필연성을 合理化하는 法則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궁극적 實在은 理念的(精神的)인 것이 아니라 物質的인 것이며, 理念이 辨證法的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物質이 辨證法的으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人間의 意識에 반영되어 思想·精神의 辨證法的 발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헤겔」哲學에서 觀念論을 버리고 辨證法的 發展法則만을 취하여 이를 唯物論과 결부시켜 놓은 合成物이 辨證法的 唯物論이다.

#### ◇ 불 쉐 비 키

多數派라는 意味의 러시아語로서 러시아 및 國際 勞動運動에 있어서의 革命的 「마르크스」主義의 潮流를 말하며 그 思想을 「불셰비즘」 또는 「레닌」主義라고도 한다.

1903年의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소련共產黨의 前身) 第2次 大會에서 黨組織 問題를 둘러싸고 黨內 對立이 激化되었다. 이때 「레닌」派는 黨을 組織된 部隊로 하여, 熟練된 職業的 革命家의 少數 精銳主義와 中央集權의인 黨組織을 主張했다. 이때 「레닌」派가 黨中央委員會에서 多數를 차지한 것으로 부터 「레닌」派를 「불셰비키」(多數派)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오늘날 「볼셰비키」라고 하면 過激하고 殘忍한 「마르크스·레닌」主義者(共產主義者)와 同義語로 使用된다.

#### ※ 멘셰비키

1903年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소련共產黨 前身) 第2次大會에서, 「볼셰비키」에 對立한 「말토프」를 中心으로 하는 少數派를 起源으로 한다.

「멘셰비키」는 「레닌」의 黨組織論에 反對했다. 그들은 “러시아는 부르조아革命을 經過한 後 비로소 社會主義 革命을 達成할 수 있다”고 看做하고, 프롤레타리아의 當面 任務는 農民 아닌 부르조아지와의 同盟에 있다고 보았다.

「멘셰비키」는 주로 熟練勞動者間에 支持者를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資本主義 體制속에 있어서의 改良主義的 傾向을 띠고 있었다. 10月革命 때는 「볼셰비키」의 武裝蜂起에 反對했었다.

#### ◇ 브레즈네프 독트린

1968年 8月 20日 深夜, 소련軍이 바르샤와同盟軍과 合勢하여 民主化 路線을 標榜한 체코의 「드브체크」政權을 武力로 짓밟은 後, 「브레즈네프」는 이를 合理化시키는 한 演說을 통하여 세가지 독트린을 發表했다.

### ① 侵蝕型 反革命論

“反革命을 단지 軍事行動 혹은 軍事的 攻擊의 形態로 看做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독트린에 따르면「平和的인 反革命」은 社會主義 秩序의 改善에 관한 討論 까지 포함한다. 이 새로운 理論은 궁극적으로 체코와 같이 社會主義 體制에서 改革의 움직임이 보일 때 이를 「侵蝕型 反革命」(조용한 反革命)으로 規定하여 內政에 干涉할 것을 合理化하기 위한 事前措置였다.

### ② 制限主權論

“한 國家의 社會主義 體制를 防衛하는 것은 그 나라만의 任務가 아니라, 基本的으로 소聯이 主導하는 全世界 社會主義 體制의 任務이며, 全世界 社會主義體制의 防衛는 國際主義者들의 任務”라고 宣言했다. 이는 “社會主義國家의 獨立과 主權은 무엇보다 資本主義로 부터의 獨立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強調한 것이다.

### ③ 프롤레타리아트 國際獨裁論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를 「國家水準」에서 「國際水準」으로 轉換시켰다.

즉 “各國家의 防禦能力을 強化함에 있어서 社會主義 共同體의 構成國家들의 協調를 強調하고, 나아가서 世界社會主義體制의 힘과 團結을 強化하는데 目的이 있다”는 口實로 合理

化시킨 主張이다. (「프라하의 봄」·참조)

※ 바르샤와條約 機構

1955年 5월에 發足한 東歐 共產國家들의 軍事機構를 말하며 소련·東獨·불가리아·헝가리·폴란드·체코·루마니아·알바니아가 加盟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1969年 9월에 脫退宣言)

1975年 5月, 20年の 條約期間을 滿了하고 다시 10年間 自動延長 되었다. 소련이 1965년에 機構의 統合強化를 主張한 것에 대하여 루마니아는 1966年 이래 最高司令官의 交代制·軍事行動에 관한 全會一致制·駐留軍 經費의 全加盟國分擔 반대 등을 要求하였으며, 1978年の 首腦會議에서도 軍事費 增額 提案에 반대하고, 여타 加盟國과 달리 自主路線을 追求하고 있다.

歴代の 最高司令官은 소련의 第1國防次官이 就任하고 있는데, 1968年 체코에 條約機構軍이 介入했을 때 보더라도, 有事時에는 指揮權이 完全히 소련軍司令官에 넘어간다는 것이 明白하게 나타난다.

#### ◇ 브레즈네프 憲法

러시아革命 60週年을 맞이하는 1977年 10月 7日에 採擇하여 施行중에 있는 소련의 新憲法을 말한다.

이 憲法은 前文 9部 21章 174條로 되어있으며, 특히 注目되는 것은 소聯社會의 現段階를 「發達한 社會主義 社會」·「全人民의 國家」라 하여, 이 社會 즉 國家에 있어서의 市民과 勤勞集團, 住民集團의 權利 및 自由가 體系的으로 記述되고, 綱領的 性格의 規定까지도 收容하여, 社會와 國家의 基本法的 性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新憲法은 1918年の 憲法과, 1924年の 憲法 및 1936年の 憲法(스탈린憲法)에 이어 네번째의 憲法이다.

(「發達한 社會主義社會」, 「全人民國家」참조)

#### ◇ 四個現代化 路線

1970年代 中半期를 전후하여 中共은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또하나의 一大轉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30餘年 동안 累積된 經濟的 矛盾의 解決을 위하여 提示된 것이 바로 「四個 現代化」路線이다.

四個 現代化 路線은 1975年 當時 周恩來首相이 全國人民

代表大會에서 報告한 「長期 經濟發展 構想」을 繼承한 것이다. 그의 構想은 1966年부터 1980年까지의 15年間을 第1段階로 하고, 1981年부터 2000年까지의 20年間을 第2段階로 하고 있다. 第1段階에서는 3次的 5個年計劃을 통하여 調整된 工業體系·國民經濟體系를 세웠고, 이어서 第2段階에서는 農業·工業·科學技術·國防의 現代化를 全面的으로 實現한다는 構想이었다.

1976年부터 華國鋒이 4人幫을 追放한 後 農業·工業·科學技術·國防을 現代化하는데 四個 現代化 路線을 大大的으로 宣傳했다. 四個 現代化 路線의 目標은 1990年代末에 이르기까지 美國·日本·西獨 등 先進 工業國家의 經濟水準에 到達하며 1人當 國民所得을 1,000 弗까지 올린다는데 있다.

새 總理에 就任한 趙紫陽은 實用主義 路線을 中國 全體에 擴大 實施하고 있는데, 農業·工業·科學技術·國防의 4個 現代化를 爲한 實用主義 路線의 展望은 그리 樂觀的인 것이 되지 못한다. 즉,

- ① 社會·經濟적으로, 人口의 壓倒的 多數가 農民인데다가 農業生産이 低調하여 財政은 계속적으로 赤字에 허덕이고 있고,
- ② 技術人力이 絶對不足 하며
- ③ 黨 幹部의 意見差異로 數次에 걸쳐 計劃을 變更함으로써 政策에 一貫性이 없고,



④ 頻繁한 政策變化로 一般國民은 鈍感하고, 政策變化 그 自體를 不安하게 느끼는 傾向이 나타나며,

⑤ 資本·技術·施設의 不足을 克服하기 위하여 美國·日本 등 西方國家에 依存하게 됨으로써, 內部的으로 「革命思想」에 動搖를 이르고 있는 등이 問題가 되고 있다.

※ 1982年12月에 改正된 新憲法의 前文에는 四個 現代化 問題를 다음과 같이 表現하고 있다. 즉

“……中國人民은 中國共產黨의 指導와 「마르크스·레닌」主義, 毛澤東思想의 引導下에 우리나라를 점차 現代화된 工業·農業·國防 및 科學技術을 갖춘……社會主義國家로 建設할 것이다.”

#### ◇ 四 大 原 則

中國共產黨이 1979年4月부터 提唱하고 있는 政治路線의 基本原則을 말한다. 그 內容은

- ① 社會主義의 道
- ② 프롤레타리아 獨裁
- ③ 中國共產黨의 指導
- ④ 「마르크스·레닌」主義·毛澤東思想의 本質을 堅持하는 것이다.

中共의 國內情勢로 보아 一種의 自由化 傾向이 相當히 進  
척되어 가고 있는데, 四大 原則은 이와 같은 自由化 傾向이  
지나치지 않도록 牽制하기 위한 金科玉條로 되고 있다.

※ 五講·四美·三熱愛

① 五 講

文明·禮貌(禮儀바르다)·衛生·秩序·道德의 다섯가지를 重  
視하고,

② 四 美

心 (精神)·語言(言語)·行爲·環境의 네가지를 美化하고,

③ 三熱愛

祖國·社會主義·共產黨의 세가지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 社 會 主 義

資本主義經濟의 誕生期 즉 16世紀 初頭부터 17世紀에 걸  
쳐서 西歐羅巴에 유토피아思想으로서의 社會批判·平等要求의 社  
會思想이 나타났다.

社會批判·平等社會 要求의 思想은 18世紀末부터 19世紀 初  
頭の 西歐羅巴에서 展開된 産業革命과 佛蘭西 大革命을 契機  
로 보다 큰 하나의 思潮로 되었다. 社會主義라는 用語도 伊太

리에 1803年, 英國에는 1820年代, 佛蘭西에는 1831年 부터 導入되었다.

이 社會主義의 思潮는 佛蘭西 大革命이 理念으로서 追求한 自由·平等의 概念을 經濟·社會生活 속에서도 現實化하려고 하였다. 「프리에」「오웬」「쌍·씨몽」등이 代表的 思想家였으며 곧 이어 「마르크스」「엔겔스」들이 이를 繼承하였다.

生産手段의 共有에 立脚한 社會라고 하는 思想이 처음 나타난 것은 「토마스·모아」의 「유토피아」(1516)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實際로 歐羅巴 諸國에서 社會主義의 思想과 運動이 多少나마 重要的 社會現象으로 된 것은 1830年代부터 1840年代의 일이다.

要컨대 自由·平等·博愛를 口號로 하는 市民革命으로 成立된 資本主義社會의 實態가 理念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에서 널리 資本主義體制 批判의 原理, 體制改造의 理念·體制選擇의 價値基準으로서 「社會主義」가 誕生한 셈인데, 그 具體的인 定義가 一致된 것이 있을 리가 없다.

現代의 社會主義에는 大別하여 두가지의 類型(흐름)이 있다. 그 하나는 ①「마르크스·레닌」主義의 潮流인데 그들은 運動의 窮極의 目標을 共產主義社會의 實現에 두고, 그 第1段階로서 社會主義社會의 實現을 志向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將來의 共產主義社會를 資本主義 崩壞 後에 바로 이어서 繼續되는 “보다 낮은 段階”와 “보

다 높은 段階”의 二段階로 分類한 것에서 始作되며, 前者 즉 共產主義社會의 낮은 段階를 社會主義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共產黨에 依하여 代表된다.

② 다른 하나는 西歐를 中心으로 한 世界의 「非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社會主義 乃至 社會民主主義의 潮流로서, 政黨으로서는 社會黨 乃至 社會民主黨에 依하여 代表된다. 이 社會主義의 흐름은 系譜上으로는 마르크스主義에서 나온 것이나 반드시 共產主義社會를 志向하는 것은 아니다.

#### ◇ 社會民主主義

社會民主主義라는 말이 언제부터 使用되기 시작하였는지는 明確하지 않으나 獨逸에서는 랏살派의 社會主義者가 처음으로 發刊한 機關誌에 社會民主主義者라는 이름을 붙이고 1865 年の 「마르크스」派의 社會主義 政黨은 “社會民主主義 勞動黨”이라고 稱했다.

以後 政治的 民主主義를 主張하는 부르조아政黨에 對立하여 社會主義的인 勞動者 政黨의 大部分이 社會民主主義黨이라 稱했다. 그 속에는 「마르크스」主義者가 많았으므로 一般的으로는 「마르크스」主義的인 社會主義의 運動이 社會民主主義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革命後 社會民主主義者의 左派가 別途로 共產

主義黨을 結成했기 때문에 第1次 大戰後에는 共產主義와 對立하는 社會主義運動의 潮流가 社會民主主義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 對立은 當初에는 運動의 進行 方法 또는 目標 達成의 過程에 關한 것으로서, 반드시 目標하는 社會에 關해서의 比견의 相違에 依한 것은 아니었으나, 共產主義者가 러시아革命과 소비에트社會主義를 모델視한 것에 對하여 社會民主主義者는 이에 반발하여 여러가지 面에서 蘇聯과 다른 社會主義의 實現을 目標로 하게끔 되었으므로, 漸次 社會主義를 둘러싼 比견의 對立이란 形態를 取하게 되었다.

第2次 大戰後에는 一時 獨逸社會民主黨과 같이 福祉社會와 一體化시켜 社會主義綱領을 拋棄하는 것이 主流로 되었으나 近年에는 佛蘭西社會黨처럼 “自主管理 社會主義”를 내세워 社會主義 理念의 再生을 꾀하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 現存 社會主義

蘇聯·東歐등에 存在하는 既成의 社會主義가 本來의 社會主義의 理念과는 隔離된 것이라는 認識이 널리 퍼지게 됨에 따라,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겼다.

지금까지 西方側의 左翼에서는 널리 「國權的 社會主義」 또는 「國家獨占體制」 등의 概念이 使用되어 왔는데, 이 “現實에 存在하는 社會主義”도 같은 試圖의 하나이다.

東獨의 黨員經濟學者 「루돌프·바로」가 1977年 西獨에서 出版한 「또하나의 길—現實에 存在하는 社會主義의 批判에 관하여」로부터 알려진 用語이다.

著者は 現存社會主義를 「마르크스」의 社會主義 理論에서 想定된 것과는 “原則적으로 別個의 秩序”라고 보는 基本的 觀點에 立脚하여 “工業社會에의 非資本主義的인 길”을 摸索하는 過程에서 形成된 「原初社會主義」(幼蟲段階의 社會主義)가 그 本質이라고 한다.

그것은 資本主義를 超越한 彼岸의 存在가 아니라 後期資本主義와 同時, 並行的인 存在로 捕捉하여 거기에서 分業論을 基礎로 새로운 階層 支配의 構造를 立體的으로 解明하고 있는 것이 그 最大의 眼目이다.

#### ◇ 社會主義 인터내쇼날

英國勞動黨·西獨社會民主黨·佛蘭西社會黨을 위시하여 全世界의 民主社會主義的 諸政黨의 國際組織이다. (本部는 런던)

第二次 大戰後 第二인터내쇼날의 흐름을 탄 國際社會主義者 會議가 共產主義 인터내쇼날 (코민테른)과 對立하였는데, 第二次 大戰後 英國勞動黨을 中心으로 1951年 6月~7月에 國際社會主義者會議 第8次 大會가 西獨 프랑크푸르트에서 開催되어 「社會主義 인터내쇼날」이라고 稱하였다.

그 때 發表된 “民主社會主義의 目的과 任務”라고 題하는 宣言은 “프랑크푸르트 宣言”이라 불리우고, 現代 社會主義의 基本的 綱領으로 되어있다.

※ 「프랑크푸르트宣言」

「히틀러」와 「스탈린」의 全體主義獨裁라고 하는 歷史的 體驗에 基礎하여, 民主的 社會主義의 進路를 밝혔다.

첫째, 資本主義의 弊害를 克服하기 爲하여 社會保障·完全雇傭·生活水準 向上의 平等化를 目標한 社會主義的 計劃化를 推進하여야 하며,

둘째, 左·右 모든 形態의 獨裁에서 人間의 自由와 尊嚴을 지키기 爲하여 政治的 民主主義가 不可缺 하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 基本目標：國內·國家間的 社會正義·平和·人權尊重·諸般民主主義 實現

① 政治的 民主主義

共產主義·全體主義的 社會 排擊, 自由속에서의 公正한 平等

② 經濟的 民主主義

完全雇傭보다 많은 生産·生活水準 向上, 社會保障·所得과 財產의 公正分配(農業·手工業·小賣業·中小企業의 私有許容)-自由市場 經濟體制

③ 社會的 民主主義

- 資本主義的 指導原理(私的利潤 增殖)
- 社會主義的 指導原理(人間的 必要充足)

#### ④ 國際的 民主主義

國民的 自由와 人權을 擁護하는 國際法 아래서 國家間에도 民主主義가 樹立되어야 하므로 모든 形態의 帝國主義는 排擊

#### ◇ 蘇聯 共產黨

一黨獨裁 體제의 蘇聯에서 唯一한 政黨이 蘇聯 共產黨이다. 蘇聯 內外的 모든 政策決定을 行하고 있는 機關이다.

1898 年에 結成된 러시아社會民主勞動黨을 前身으로 하여, 1918 年の 第7次 黨大會에서 「러시아共產黨 불셰비키」로 改稱했다가, 1925 年の 第14次 黨大會에서 「全聯邦共產黨불셰비키」로 改稱하고, 1952 年の 第19次 黨大會에서 現在의 蘇聯 共產黨으로 되었다.

蘇聯의 新憲法(브레즈네프憲法)에서는 “蘇聯邦 共產黨은 소비에트社會를 指導하고 方向을 設定하는 勢力이며, 소비에트社會의 政治體制와 國家機關과 社會組織의 中核이다. …… 「마르크스·레닌」主義 學說로 武裝된 共產黨은 社會發展의 全般的인 展望과 蘇聯邦 內外政策의 方針을 決定하고, 소비에트國民의 創造的 活動을 指導하고, 共產主義의 勝利를 目標로 하는 소비에트國民의 鬪爭에 計劃性和 科學的 뒷받침을 준다”고 規



定하여 嚴格한 中央集權制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다.

### ※ 政 治 局

黨中央委員會의 總會와 總會사이에서 黨活動을 指導하는 機關이다. 事實上 蘇聯 內外政策의 決定을 行하는 蘇聯 最高 政策決定 機關이다. 正局員 7名과 候補局員 8名으로 構成되어 있다.(1983年 7月 現在) 政治局은 보통 週1回 定例會議을 開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52年부터 1966年 사이에는 幹部會라고 稱했으나, 1966年의 第23次 黨大會에서 다시 舊名으로 復歸했다.

### ※ 書 記 局

書記局은 政治局이 提案한 것을 履行하는 機關이지만, 보다 많은 業務·內的政策의 立案, 要員의 選拔과 配置 등을 行한다. 政治局과 함께 最高 政策決定 機關이다. 定例會議은 週1회이며, 現在 9名의 書記가 있으며, 書記長이 黨首格이다.

### ◇ 소 비 에 트

러시아語로서 評議會 또는 代表者會議을 意味한다. 現在는 蘇聯邦의 各級 權力機關을 말한다.

「소비에트」는 1905年 革命中에 罷業勞動者들이 그들中에

서 代議員을 選出하여 代議員會議를 갖춘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레닌」은 「소비에트」를 「콤문」과 同等하게 評價하였다. 10月革命 때 소비에트는 二重政權의 形式으로 臨時政府와 對抗하는 革命運動側의 中樞機關이었으며, 革命成功 後는 프롤레타리아 執權의 遂行機關으로 轉化했다.

階級으로서의 反革命層이 없어진 後에는 「소비에트」는 蘇聯邦의 市民權을 갖춘 全市民을 平等하게 代表하는 代議員에 依하여 構成된다.

「소비에트」는 各 地域에 있어서 人民集團의 主權의 表現이며, 村이나 地區에는 村·地區 소비에트가 있고, 全國的으로는 共和國最高會議 소비에트가 있고 全蘇聯邦에는 全蘇聯邦 最高 소비에트가 있다.

「소비에트」는 立法權·行政權·司法權을 統合하여 가지고 있다.

#### ◇ 舍 호 즈

러시아語로서 소비에트經營이라는 意味의 略字이다. 普通 國營農場이라고 번역한다. 「콜호즈」와 함께 蘇聯의 二大 農業經營 形態이다. 1979年 現在 「舍호즈」의 數는 20,767 이고 勞動者職員數는 1,190 萬名이며 蘇聯 全農土의 75.5%를 經營하고 있다.

「슌호즈」는 國家經營으로서 直接 國家計劃에 따라 農業生産을 經營하며 그 生産物의 基本的 部分을 國家에 引渡한다. 副業部分의 生産物은 經營 内部에서 加工된 것을 包含하여 直接 消費者에게 팔 수 있다.

이 「슌호즈」는 “社會主義 農業의 最高 組織形態”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그 效率性은 지극히 나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콜호즈」참조)

#### ※ 自留地(터밭)

「슌호즈」員이나 「콜호즈」員이 個人的 副業經營을 하는 土地를 말한다.

蘇聯 全農地面積의 約1%에 該當되는 自留地로부터, 감자 總生産의 61%, 野菜 總生産의 29%, 肉類 總生産의 29%, 牛乳 總生産의 29%, 鷄卵 總生産의 34%를 生産했다는 事實은 國家經營이나 集團經營보다 個人經營이 越等하게 效率性이 높음을 證明해 주고 있다.

#### ◇ 修正主義

修正主義라는 말의 起源은 19世紀末 獨逸社會民主黨의 理論家 「에드워드·베른슈타인」에 의하여 시작된 「마르크스」主義 教義의 修正에 거슬러 올라간다.

「베른슈타인」의 見解는 「社會主義의 諸前提와 社會民主主義의 任務」(1899年)라는 著書에서 볼 수 있는바 그 속에서 그는 資本主義社會의 發展은 「마르크스」의 「共產黨 宣言」이 그려놓은 것처럼 進行되지는 않았다고 해서 社會民主黨이 長期的으로 해야 할 일은, 資本主義의 崩壞에 期待를 거는 일이 아니라 國家와 社會의 民主的 變革에 도움이 될 모든 改革을 爲하여 鬭爭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을 契機로 시작된 國際的인 修正主義 論爭은 1903年 「베른슈타인」批判 決議로써 일단 幕은 내려지나 그 影響은 後에도 繼續 남았다. 以來 「마르크스」主義 陣營속에서는 「베른슈타인」 見解는 修正主義의 別名처럼 看做되어 왔는데, 「유로· Komunizm」의 登場라도 關聯되어 最近 조용한 再評價가 進行中에 있다.

事實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排斥하고 改革主義·漸進主義·議會主義를 擇했다는 點에서 「베른슈타인」 主張에는 오늘날의 유로· Komunizm을 豫見한 것 같은 點이 적지 않다. 60年代의 中·蘇紛爭에서 스탈린批判 後의 蘇聯共產黨의 路線을 「現代 修正主義」라고 激烈하게 批判한 中國共產黨이 蘇聯을 修正主義라고 부르는 것을 中止했을 뿐 아니라, 한때 修正主義視한 유고슬라비아의 經驗에서 배우려고 하고 있고, 유로· Komunizm의 諸黨에 接해 가는 것을 보면, 무엇이 “修正主義냐?” 하는 것은 極히 相對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教條主義者」나 「修正主義者」라는 말은, 共產獨裁者가 反對派를 肅清할 때 붙이는 罪目으로 많이 活用하고 있다. 즉 누가 教條主義者이고 修正主義者인가 하는 決定은 共產獨裁者가 判定하는 것으로서 그 基準이 매우 모호하다.  
(「教條主義」참조)

#### ◇ 肅 清

어느 共產國家를 莫論하고, 共產主義體制維持를 爲한 가장 重要한 強制裝置로 테러와 肅清을 敢行한다.

肅清이란 權力鬭爭의 過程에서 이데올로기나 政策路線을 둘러싼 論爭을 媒介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共產主義 政治過程에 있어서는 恒久的이며 基本的인 現象이다.

共產主義者들에 있어서 肅清은 “黨 隊列에 끼어든 敵을 除去하고 「革命思想의 純潔性」을 守護”하기 위한 自體淨化의 過程으로 合理化시키고 있다.

肅清은 黨으로부터의 追放을 비롯하여 逮捕·投獄·殺害에 이르기까지 各種 形態로 나타나며, 스파이·人民의 敵·反革命·反黨分子등 여러가지 罪目으로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肅清은 여러 動機에서 戰術적으로 斷行된다. 그 중 一般的인 것으로서는,

① 黨路線에 대한 異議나 黨指導部の 이데올로기 解釋에 대한 不贊同,

② 問題가 되는 黨員과 緊密한 接觸 關係

③ 黨路線의 失敗의 政治的 責任을 他人에게 돌리기 위하여 黨員을 祭物로 提供하 는경우

④ 個人的인 權力鬭爭과 復讐 等이다.

蘇聯의 大肅清은 「스탈린」時代인 1934年 12月의 「끼로프」暗殺事件으로 시작된다. 「KGB」가 活動하여, “스파이分子, 腐敗墮落分子, 出世主義者, 分派活動分子, 權力이나 地位의 私物化를 꾀하는 黨員등을 黨規約에 依據 處分한다”는 것으로 擴大解釋 되어, 惡名 높은 大肅清으로 됨으로써 此의 肅清은 頂點에 達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120萬 以上の 黨員 (全黨員의 半數)이 逮捕되었다. 其中 다시 自由를 찾은 사람은 不過 5萬이었고 기타는 銃殺되었거나 아니면 收容所에서 죽었다. 그 밖에 追放된 富農을 收容하는 收容所에서 적어도 千萬名 以上이 죽었으며……” (蘇聯의 物理學者 사하로프證言)

※ 年代別 肅清 內容

① 1927年 11月 - 「프로즈끼」와 「지노비에프」除名 및 그 追從者 2,500名 自進脫黨, 1,500名 除名.

② 1933年中 80萬, 1934年中 34萬의 黨員 除名.

③ 1938年 3月 黨政治局員「부하린」前首相「루이코프」處刑.

④ 1937年6月 소련군 最高司令官 「프하체프스키」元帥, 參謀長 「에고로프」元帥, 極東軍司令官 「부류헐」元帥 등 處刑.

⑤ 1939年 3月 18次 黨大會에서 1,966名의 代議員중 1,108名이 肅清, 中央委員 71名中 55名, 同 候補委員 68名中 60名이 除去되었고, 蘇聯軍의 경우, 元帥 5名中 3名, 軍司令官 16名中 14名, 司令官級 提督 8名 全員, 軍團司令官 67名中 60名, 帥團長 199名中 136名, 旅團長 397名中 221名, 國防次官 代理 11名 全員, 最高軍事評議會 委員 80名中 75名, 將校團員 中 50%에 該當하는 3萬5千名이 處刑되었다.

#### ※ K G B

蘇聯의 秘密警察을 말하며, 國內의 治安과 對外戰略의 遂行 (情報蒐集)이 表面上의 主任務이다.

이와 같은 重大한 任務를 갖는 機關으로서 1917年 12月 20日에 「체카」(秘密警察)가 設置되었다. 그後 1922年에 「게베우」(國家 政治局)로 改編되었다가 1953年부터 「KGB」(國家保安 委員會)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總稱하여 「KGB」라고도 한다.

이 「KGB」는 惡名높은 國際的인 스파이 事件뿐만 아니라 蘇聯國內의 政權 交替時에도 큰 役割을 한다. 「KGB」의 頭目으로서 스탈린時代의 「베리아」, 후르시초프時代의 「세레핀」 부레즈네프時代의 「안드로포프」가 惡名 높다.

## ◇ 十 月 革 命

1917年 10月 25日(陽曆 11月 7日)에 러시아에서 成功시킨 世界最初の 社會主義(共產主義) 革命을 말한다.

二月革命 以後 平和와 土地와 빵을 願하는 러시아의 勞動者와 農民과 兵士들을, 「레닌」이 指導하는 「볼셰비키」들이 宣傳·煽動을 통해서 武裝蜂起를 일으키고, 프롤레타리아트 執權의 한 形態라고 하는 소비에트 權力을 樹立했다.

臨時政府를 打倒한 「볼셰비키」는 「人民委員會議」라고 稱하는 政府를 發足시켜 「레닌」이 그 議長(首相)으로 되었다.

러시아 十月革命을 可能케 했던 要因으로는

① 戰爭(1914년에 勃發한 一次世界大戰)이 빚어낸 精神的·社會的인 混亂과

② 臨時政府의 失政과 無能·鈍感을 들 수 있겠으나, 根本的으로는 이러한 條件들을 巧妙하고 교활하게 利用한 「볼셰비키」의 戰術과 戰鬥力에 있다고 볼 것이다.

當時 「볼셰비키」는 數的으로는 劣勢였으나, 黨的 修練, 規律, 組織力, 宣傳技術, 戰鬥戰術은 越等했다.

## ※ 二 月 革 命

1917年 2月(陽曆 3月)에 러시아의 民衆이 「짜리즘」(帝政)



을 崩壞시킨 革命이다. 二月革命의 結果 두개의 權力機構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國會와 소비에트가 그것이다.

이 當時 「볼셰비키」는 國民全體 中에서 極少數派였으며, 소비에트 안에서도 少數派였다. 4월에 스위스의 亡命에서 歸國한 「레닌」이 「볼셰비키」를 急速하게 成長시켜 十月革命으로 連結시켰다.

즉, 러시아 二月革命으로 짜리즘을 崩壞시킨 것은 「레닌」一派인 「볼셰비키」가 아니라, 러시아의 民衆이었다.

#### ◇ 歷 史 決 議

이 歷史決議는 「建國 以來의 黨의 약간의 歷史問題에 관한 決議」를 줄인 말로서, 1981年 6월에 열린 中國共產黨 第11期 6次 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서 採擇되었다. 그 主要部分은 文化大革命과 毛澤東에 對한 評價이다.

① 文化大革命에 對한 決議는 “毛澤東이 發動하여 指令한 것으로서, 黨과 國家와 人民에 대하여 建國 이래 最大의 損失을 준 左傾의 重大한 誤謬였다”는 判定을 내렸다.

② 毛澤東의 繼續革命論에 대해서는 “繼續革命論은 毛澤東을 中心으로 한 共產黨員들의 思想的 產物인 本來의 毛澤東思想과는 區別되어야 할 것이며, 毛澤東思想은 今後에도 黨과 國家의 指導理念이다”라는 判定이 내려졌다. 但 “毛澤東 自

身에 對해서는 晩年の 重大한 誤謬를 犯한데도 不拘하고 그 生涯를 中國革命에 바치고 成功으로 引導한 人物이며, 誤謬는 둘째이고 功績이 첫째이기 때문에, 依然히 敬愛하는 偉大한 指導者이며 教師이다”라는 判定이 내려졌다.(이 判定은 改正된 新憲法에도 反映되어 있다.)

#### ◇ 永續革命論

「레온·트로즈끼」는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에 對하여 「永續革命論」(不斷革命論이라고도 함)을 들고 抗議했다. 그의 著書「1905年」의 序文에서 「트로즈끼」는 다음과 같이 自己의 主張을 썼다. “農民이 壓倒的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後進國家 勞動政府에 있어서의 各種 矛盾은 오직 國際的 範圍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世界革命의 舞臺에서만 그 解決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소비에트政權이 世界資本主義國家 앞에서 굳세게 維持되어 온 事實은 認定하나, 우리는 政治적으로나 軍事的 意味에 있어서나 社會主義的 社會를 創立하는데 이르지 못하였으며, ……러시아에서 社會主義的 經濟의 眞正한 向上은 오직 유럽의 가장 重要한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勝利한 以後라야만 可能하게 될 것을 確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로즈끼」의 永續革命論을 要約하면, “一國에 있어서의 社會主義革命의 勝利는 不可能하며, 프롤레타리아革命과 社會主義

社會의 建設은, 最初는 民族의 境界 속에서 始作되지만, 그 最終的 勝利는 적어도 數個國에서의 革命의 成功과 後에는 世界 革命의 達成을 이룩함으로써 비로소 可能하다”는 것이다.

「프로즈끼」의 永續革命論은 그의 獨創的 理論이 아니라, 十月革命 以前 또는 그 직후에 모든 黨幹部들이 主張해 온 理論이었다. 그의 革命論은 러시아革命을 世界革命의 一環으로 보고, 유럽諸國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일어나지 않는 限, 後進國 러시아만의 一國社會主義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프로즈끼」의 主張은, 1924年부터 1928年 사이에, 共産黨이나 콤인테른에서의 「스탈린」과의 論爭에서 敗北하고, 1929年 國外로 追放되었다.

그 後 「프로즈끼」는 世界 各地에서 프로즈끼主義者 그룹을 組織하여 「第4 인터내셔널」을 結成하여 反蘇活動을 展開했으나, 1940年 멕시코에서 「스탈린」에 의하여 暗殺되었다.

#### ◇ 유로콤뮤니즘

西歐共産黨 그중에서도 特히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各共産黨이 취한 「自主的」인 共産主義 路線을 말한다.

西歐의 資本主義體制 속에서 構築되어온 議會制民主主義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여 「프롤레타리아 獨裁」 및 「레닌主義」를 拋棄하고 複數政黨制를 指向하여 民主的인 政權交替를 保障하고,

自由와 민주主義를 살리면서 社會主義에로의 길을 걸고자 하는 유로комму니즘의 柔軟路線은 1976年의 東西 兩世界에 深刻한 影響을 주었다.

이태리共産黨은 1956年의 「스탈린」批判後에, 이태리의 現實이나 歷史를 尊重하는 「社會主義에로의 이태리의 길」과 「構造改革 路線」等を 表明하고, 1973年에는 「캐토릭」勢力과의 協力을 呼訴하는 「歷史的 妥協」을 提示하기에 이르렀다. 이 柔軟路線은 이태리共産黨을 西歐 最大의 共産黨으로 成長시켰다.

1979年 4月의 黨大會에서 유로комму니즘을 蘇聯, 東歐型 社會主義도 아니고 社會民主主義도 아닌 「第三의 길」이라고 하는 提제가 採擇되었다.

프랑스共産黨은 1976年 2月의 第22次 共産黨大會에서 「프롤레타리아 獨裁 拋棄」를 提示하고, 民主的 自由를 強調하여, 「모스크바 離脫」을 表明했다. 共産黨과 社會黨을 中心으로 하는 左翼聯合은 選舉에서 進出했으나, 共産黨 勢力은 貧弱하게 되어, 1979年 5月의 黨大會에서는 左翼聯合의 路線을 變更하여 共産黨 獨自의 主張을 強調하기 시작했다.

1980年에 접어들어 유로комму니즘의 行進에 動搖가 생겼다. 이태리·스페인 共産黨은 社會黨系 組織에 대하여 協調의 路線을 維持하는데 反하여, 프랑스共産黨은 激烈한 社會黨 批判을 敢行한 結果, 1981年 6月의 國民議會 選舉에서 大幅 議席을

喪失했다.

### ※ 유로комму니즘 論爭

유로комму니즘은 많은 政治的·社會的 勢力的 共存을 認定하고 移住·表現·集會·勞組結成·宗教·文化등의 自由를 保障하고 普通選舉權을 尊重하여 政權黨의 民主的 交替를 認定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立場은 蘇聯·東歐共產諸國에 있어서의 自由·人權抑壓에 대한 批判과 連結되어 蘇聯型 社會主義에 대한 批判으로 되었다.

그러한 유로комму니즘에 대하여 蘇聯·東歐共產黨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서, 1977年 6月에는 蘇聯共產黨의 立場에서 유로комму니즘의 批判을 明白하게 했다. 즉 “유로комму니즘은 修正主義이며, 蘇聯의 現狀을 誤解하여 反蘇主義의 立場을 取하였으며, 西歐共產黨을 東歐共產黨과 對立시켜 勞動者階級과 모든 勞動者의 利益을 守護하는 鬭爭을 後退시키고 있다”는 批判이다. 이와 같은 蘇聯共產黨의 유로комму니즘 批判에 대하여 스페인·이태리·프랑스共產黨은 各各 反論을 公表했다.

1978年에는 유로комму니즘의 立場에서 蘇聯의 스탈린主義的 側面과 프랑스共產黨의 過去에 대하여 嚴重하게 批判한 프랑스共產黨員 5名의 共著 「蘇聯과 우리들」이 베스트셀러가 되

있는데, 蘇聯共產黨 機關誌 「콤무니스트」는 同年 12月號에 이 著書에 關하여 長文의 書評을 掲載하고 強力한 反論을 展開했다.

「유로콤뮤니즘」은 아직도 形成過程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의 眞僞를 判明하기가 어렵다.

다만 理解할 수 있는 것은

- ① 執權을 爲한 戰術的 變化가 아니겠는가? 하는 問題와
- ② 單一的 共產主義運動이 多元化·分極化 되고 있다는 것과
- ③ 後進農業國家 또는 前資本主義 段階의 國家에서 遂行되어 온 共產革命이 先進國家에서 새로운 形態의 革命을 試圖하고 있다는 點 등이다.

#### ◇ 唯 物 史 觀

唯物史觀은 「마르크스·엔겔스」가 提唱한 歷史觀으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者( 共產主義者 )들의 歷史觀이다.

唯物史觀에 依하면 生産에는 生産力과 生産關係라는 二個의 要素가 있으며, 生産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生産을 둘러싸고 서로 關係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生産關係라는 것이다. 그런데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하나의 生産樣式에 包括되어 있는 것으로서, 社會의 物質的 生産力은 어느 段階까지 發展하면 現存의 生産關係와 矛盾되게 됨에 따라, 낡은 生産關係는 깨어지

고 새로운 生産關係가 誕生된다는 것인 바, 이 때에 社會革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生産力이 發展하면 낡은 生産關係에서 利益을 보던 階級과 새로운 生産關係가 생겨나야 利益을 보게 될 階級間에 階級鬭爭을 展開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階級鬭爭은 漸次 激化되어 마침내는 社會革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觀點에서 人類社會의 發展을 다섯 가지 段階로 區分하였는데, 이 區分은 生産樣式을 基準으로 해서 나누어 졌는바, 이것이 所謂 「亞細亞的·古代的·封建的·近代 부르조아의 그리고 共產主義的 社會」라는 段階設定이다. 後에 이 段階를 後繼者들이 다시 「原始共產制·奴隸制·封建制 資本主義制·共產主義制」라는 다섯 段階로 定立하였던 것이다.

要컨대 唯物史觀은 “歷史는 반드시 定해진 段階를 밟으면서 必然的으로 前進한다”는 發展段階的 必然論的 歷史觀이며, “人類社會의 歷史를 階級鬭爭의 歷史”로 보는 獨斷的이고 偏見的인 歷史觀이다.

資本主義가 補完的 修正을 거듭해 온 것처럼 共產主義도 적지 않게 補完的 修正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共產主義에는 可變性を 지닌 部分과 不變性を 지닌 部分이 있는데, 「共產主義 戰略戰術」이 前者에 屬하고 唯物史觀이 後者에 屬한다.

## ◇ 이 데 올 로 기

「이데올로기」의 概念은 發生的으로는 「플라톤」의 「國家」에 거슬러 올라가나 一般的으로는 18世紀 佛蘭西의 唯物論 哲學者 「트라시」의 “이데올로기 概論”(1801~15)에 依하여 成立되었다.

그후 「마르크스」·「엔겔스」의 “도이체·이데올로기”(1845~46)에 의하여 社會的 「이데올로기」의 概念이 確立되었다.

「이데올로기」란 말을 우리말로 翻譯하면 “觀念形態”라고 되며, 社會意識이 갖는 여러가지 形態(政治·經濟·法律·思想·科學·哲學·道德·宗教·藝術 등)를 말하는데, 이것은 唯物史觀 立場에서의 思考方式으로서, 物質的 經濟的인 社會의 下部構造에 대하여,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反映하는 觀念的 上部構造라고 한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社會的으로 一定한 政治的·階級的 立場을 取한 思考方式을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 ※ 이데올로기 鬭爭

階級鬭爭의 一端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階級 階層의 이데올로기의 反眞理性을 暴露 또는 批判하면서, 同時에 自己의 階級·階層의 이데올로기의 立場의 眞理性을 높이 내세우려 한다. 廣義로서는 理論鬭爭까지도 包含하여 使用된다.



## ◇ 一國社會主義

“萬國의 勞働者여 團結하라”고 외치던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인терна쇼날)는 「스탈린」에 이르러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로 變身하였다. 이는 當時 러시아의 民族的 狀況이나 政治的 事件으로 미루어 볼 때 「스탈린」에게는 不可避한 것으로서 그의 政治生命과도 直結되는 問題였다. 바로 이러한 狀況에서 나온 것이 「一國社會主義」이며, 이 統治理念은 소비에트의 理念 變遷 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 「프로즈키」의 永續革命論과 對立한다.

1924年 執筆한 그의 論文 「레닌주의의 基礎에 관하여」로부터 1926年의 「레닌主義의 諸問題에 대하여」에 이르는 몇개의 論文 中에서 漸次 그 內容을 바꾸어 가면서 定式化 되었는데 一國社會主義論은 實質的으로 理論이라기 보다는 政策으로서 戰爭과 內亂으로 國力이 消盡된 러시아의 要求를 充足시키기 爲하여 定立한 結論이다.

1次世界大戰 後의 激動도 漸次 鎮靜되면서 周邊國家들의 國內政治와 社會經濟的인 狀況은 安定을 回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共產革命의 可能性은 「退潮期」를 맞았고, 소련의 安保 優先은 不可避한 課題로 되었다. 지금까지 周邊國家의 共產革命을 前提로 했던 소련의 戰略은 부득이 그 軌道를 修正하지 않으면 안될 局面에 逢着했다.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

는 이와 같은 周邊的 狀況의 變化에 따라 案出된 政策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에게 있어서 이 政策은 臨時方便的인 戰術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革命 後 일어났던 유럽에서의 革命的인 波濤가 獨逸·伊太利·헝가리 그리고 발틱 諸國에서의 革命的 失敗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興件이 「스탈린」으로 하여금 1925年 4月 第14次 黨大會에서 最終적으로 採擇된 “한나라 안에서 社會主義의 建設은 可能하다”는 一國社會主義政策을 誕生케 했다.

事實 一國社會主義에 包含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은 「레닌」 「트로츠키」 그리고 先代의 러시아社會主義者들로부터 發해해 낸 思想의 奇妙한 複合物이며, 많은 影響을 러시아 民族主義에서 받은 것이기도 하다.

結局 一國社會主義論은

① 永久革命 이데올로기에서 소련의 工業化 이데올로기로 變貌한 最初의 重要論據이며,

② 「스탈린」主義的 社會主義 建設의 典型으로서 一人支配 體制의 礎石이 되었다.

#### ◇ 剩餘價值說

剩餘價值說은 勞動價值說을 土臺로 하여 成立시킨 假說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勞動者의 勞動力도 하나의 商品이며 이 商品의 價格이 곧 勞動賃金인데, 勞動力의 價值도 勞動力을 生

産하는데 必要한 勞動量에 依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勞動者가 自身の 生活必須品을 얻는데 必要로 하는 勞動을 「必要勞動」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超過하는 勞動을 「剩餘勞動」이라고 定했다.

그는 必要勞動에 依해서 生産되는 價値는 賃金으로서 勞動者에게 支拂되나, 剩餘勞動이 生産한 價値 즉 「剩餘價値」는 勞動者에게 支拂하지 않은 채, 資本家의 利潤의 源泉이 된다고 主張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搾取」라고 하였다.

이처럼 利潤이 오직 剩餘價値로서만 얻어진다는 前提위에서 「마르크스」는 生産過程에서 作用하는 資本을 두 部分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즉 「不變資本」과 「可變資本」이 그것이다.

그는 生産要素 中에서 生産手段을 購入하는데 쓰이는 資本을 不變資本이라 불렀고, 勞動賃金에 充當되는 資本을 可變資本이라고 부른 것이다. 따라서 剩餘價値는 오직 可變資本만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剩餘價値說이야말로 마르크스經濟學의 核心이며(엔겔스), 礎石이라고 한다(레닌). 그리고 “剩餘價値說을 통해서 資本主義的 生産의 秘密을 暴露한 것은 唯物史觀과 더불어 마르크스主義를 科學으로 만든 두가지의 偉大한 發見”이라고 自讚한다.

그런데 萬一 마르크스主義의 主張처럼 利潤이 오직 可變資本에서만 發生하는 것이라면, 不變資本에 置重하는(資本의 大

부분을 技術革新과 機械設備에 配當하는) 工業은 利潤이 적고, 反對로 거의 可變資本에만 置重하는(生産을 主로 勞動力에 依存하는) 手工業이 오히려 많은 利益을 본다는 結論이 나오게 되는 바, 이것은 現實과 너무나 背馳되는 이야기다. 眞正 「마르크스」의 主張이 옳은 것이라면, 오늘날 勞働者를 全혀 雇傭하지 않는 自動化 生産에서는 利潤이 全혀 생겨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 資本主義 崩壞法則

「마르크스」가 資本主義 沒落을 期待하고 豫言하기 資本主義의 崩壞過程을 法則化시킨 것으로서, 一貫된 內容을 要約하면,

-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資本家の 目的은 利潤追求에 있다.
- 돈을 벌기 위해서는 商品이 잘 팔려야 한다.
- 商品을 잘 팔기 위해서는 品質 좋고 값이 싸야 한다.
- 싸게 팔기 위해서는 싼값으로 生産하지 않으면 안된다.
- 生産費를 싸게하기 위해서는 技術改善과 多量生産을 하게 된다.
- 그러기 위해서는 不變資本 比率은 增加되고, 可變資本 比率은 減少되어야 한다.
- 可變資本의 減少에 따라 賃金은 下落하고 一部는 失業

한다.

- 이 失業者(産業豫備軍) 때문에 勞動者 大衆의 購買力이 減少 一路를 걷는다. 따라서 商品의 販路는 막힌다.
- 無政府 狀態인 生產業界는 過剩生産이 일어나 恐慌이來 襲한다.
- 商品은 싼값으로 팔리고, 利潤은 全無하게 되며 그 程度가 加速化된다.
- 資本蓄積과 集中은 多數의 勞動者를 集結시키고,
- 그들의 階級意識을 높혀 政治的으로 訓練하고
- 그 團結力을 強化하여 革命主力을 形成하고 強化한다.
- 勞動者에 대한 抑壓·隸屬·貧困의 增大로 階級鬭爭이 激化된다.
- 資本主義的 生産關係(私的所有)는 生産力의 狀態(社會化될 生産)와 兩立 못하게 된다.
- 그 結果 資本主義的 生産關係는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하여 打倒된다.

「마르크스」는 이와같이 資本主義를 絶望的인 것으로 보고 그의 必然的인 沒落을 豫言했다. 그러나 이 資本主義 沒落의 理論을 오늘날의 現實에 適用시키기에는 너무 褪色한 理論이 되어 버렸다. 「마르크스」主義가 橫行하던 19世紀의 前半期에는 勞動法이나 勞動基準法도 없었고, 社會福祉나 社會保障이 制度化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社會的인 緊張을 暴力으

로 解決하려는 風潮가 流行病처럼 蔓延되어 있었고, 「마르크스」는 이러한 霧圍氣 속에서 自己의 學說을 定立했던 것이다.

#### ◇ 自主管理 社會主義

自主管理 思想에 따르면, 共產主義이건 社會黨系나 社會民主主義 系譜이건간에 從來의 社會主義는 全的으로 中央執權的 管理體制인 것으로서 위로부터 國家에 의한 個人의 制約이라는 側面이 있었으며 소련형 社會主義는 물론 英國勞動黨의 政策마저도 國家中心主義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自主管理의 思想은 이와같은 從來의 社會主義를 克服하려고 한다.

또한 종래의 社會主義 思想에 있어서는 財産이나 生産, 交換手段의 社會的 所有 즉 物質의 所有에 力點을 두었다. 이에 反하여 自主管理 思想은, 이와 同時에 決定權의 所有를 重視하고 있다.

自主管理의 用語는 소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獨自의 路線을 擇한 유고슬라비아의 政治·經濟·社會的 經驗의 表現으로서 造語된 것이다. 1948年 유고슬라비아는 코민포름에서 除外된 後 勞動者 自主管理(勞動者가 基本的 問題에 關해서 決定權을 가지고 生産에서 分配·雇傭에 이르기까지 統制하려는 體制)라는 새로운 經濟方式을 案出하여 1950年 6月에 人民會議에서 可決했다.

그리하여 「勞動集團에 의한 國家經濟企業과, 上級經濟聯合의 管理에 關한 基本法」에 의하여 「勞動者 評議會」(經濟協議會에 相當하는 企業의 最高管理體)로서 1952年에서 1962年에 걸쳐 定着되었다.

한편 1955年 9월에 最小의 地域行政單位인 「콤문」(總數 513, 平均住民數 4萬)이 導入되어 이 두개의 制度化가 尤고 自主管理의 核이 되었다.

1953年의 新憲法에서 이 두개의 核이 명확하게 規定되어, 後 自主管理原則은 工業部門뿐 아니라 모든 分野에 浸透되었다.

다시 1963年의 新憲法에서는 「콤문議會」가 「콤문會議」(地域住民을 代表)와 「勞動共同體 會議」(職場·職能을 代表)로 이루어짐을 規定하고, 勞動者의 自主管理가 政治次元에도 擴張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方向은 1974年의 新憲法, 1976年의 「聯合 勞動法」등에 의하여 계속 試行錯誤를 거듭하면서 改善이 加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 市場制 社會主義

이 用語는 普通 尤고社會主義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 소련형의 집권적인 計劃經濟에서는 經濟活動은 主로 指令的인 計劃化에 의하여 統制되고, 市場은 能動的인 役割을 遂行하지 못하는데 반하여, 尤고슬라비아에서는 中央에서의 計劃

化는 必要最少限의 조정에 한하고, 市場이 經濟活動의 主된 調整者로 되어있다.

本來 市場機構에는 資本主義나 社會主義나 하는 體制論的 次元과는 다른 機能論的 側面이 있기 때문에, 市場機構의 利用에 의하여 社會主義가 社會主義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市場機構의 利用이 지나치면(다른 말로 中央에서의 計劃的 調整이 弱화되면) 소득격차의 擴大라든가 인플레이션 같은 缺陷이 表面化하는 것도 事實이다.

#### ◇ 前 衛 黨 論

「스탈린」이 쓴 「레닌主義의 基礎」라는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레닌」의 黨理論에 따르면,

① 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隊이다. 黨은 프롤레타리아트를 領導해야 하며 先頭에 서야 한다.

② 黨은 프롤레타리아트의 組織된 部隊이다.

③ 黨은 鋼鐵같은 規律을 가진 意思의 統合體로서 프롤레타리아 組織의 最高形態이다 등으로 그 구성 원칙에 있어서 革命의 前衛隊로서의 「職業革命家」를 重視하였고, 이 職業革命家は 訓練된 少數의 精銳分子라야 하며, 必要時 언제든지 使用할 수 있는 武裝部隊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레닌」의 前衛黨 概念은 本質的으로 大衆政黨과 區別되며,



一般 大衆의 利益은 말할 것도 없고, 프롤레타리아트의 利益과도 相關이 없다. 共產主義者들은 처음부터 黨을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隊 즉, 少數의 엘리트組織이라고 하여 排他的인 組織으로 생각했다.

#### ◇ 全人民 國家

소련 新憲法은 그 第1條에서 「소비에트社會主義 共和國 聯邦은 勞動者·農民 및 인테리겐차와 이나라 모든 民族과 民族體의 勤勞者의 意志와 利益을 表現하는 社會主義的 全人民 國家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1961년에 制定된 共產黨綱領의 規定을 繼承한 것으로서, 소련에 있어서의 成熟한 社會主義的 社會關係의 形成과 「發達한 社會主義 社會」의 建設終了에 의하여 소련은 프롤레타리아 執權으로부터 全人民國家에 轉化했다는 것이다.

全人民國家의 主要 任務는

- ① 共產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基礎의 創造
- ② 社會主義的 社會關係의 完成 및 그 共產主義的 關係에 로의 變革
- ③ 共產主義 社會에 適應하는 人間의 養成
- ④ 勞動者의 物質的 文化的 生活水準의 向上
- ⑤ 國家의 安全保障 平和의 強化 및 國際協力の 發展의 促

進이라고 한다.

소련은 「發達한 社會主義」에 移行했다고 하는 規定에 맞추어 國家에 새로운 役割이 부과되었다. 즉 “國家는 規律을 強化하고, 行政機關의 모든 部門의 일에 대한 日常的 監督과 소비에트權力の 諸決定 및 諸法律의 實行에 대한 監督”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는 國家를 規定하는 경우, “부르조아지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의 擄取를 위한 機關(부르조아 獨裁의 國家)”라든가, “權力を 逆轉시킨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조아지의 反抗을 抑壓하기 위한 機關(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國家)”등으로 國家를 「權力機關」으로 主張해 왔는데, 「全人民의 國家」 規定에 의하여 國家는 自治機關으로서 認定한 것으로 되어 버렸다.

#### ◇ 全體主義

全體主義는 一種의 恐怖政治이다. 이 全體主義的 獨裁의 典型이 共產主義(마르크스·레닌主義)이다.

「나치즘」과 「파시즘」을 全體主義의 右派라고 한다면 共產主義는 左派라고 할 수 있다.

全體主義는 一般的으로

##### ① 官製 이데올로기

② 唯一黨

③ 테러리즘에 의한 統制 體系

④ 거의 完璧한 統制的 獨占

⑤ 거의 完璧한 武裝力的 獨占

⑥ 中央集權的 統制經濟 등을 그 特徵으로 들 수 있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特定한 民族 또는 種族에 의한 世界支配를 追求하는데 反하여, 共產主義는 階級(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世界支配를 追求한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既存 階級構造의 打破를 追求하지 않는데 反하여, 共產主義는 既存 階級構造의 打破를 追求한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어느 程度 「協同의 原理」를 前提로 한 組織·指導原理인데 反하여, 共產主義는 보다 排他的이며, 位階的이고, 專制的이며 閉鎖的이다.

### ※ 파 시 즘

一般的으로는 民主主義를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全體主義的인 政治體制 乃至 그와 같은 體制的 實現을 目標로 한 思想·이데올로기運動의 總稱이다.

歷史的으로는 1920年代 以後의 資本主義體制的 危機的 狀況下에서 國民의 不安과 不滿 및 反資本主義的 感情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反資本主義를 標榜하고 各國에 登場하였으나,

現實적으로는 「豫防的 反革命」의 思想과 運動이었다.

그것을 基盤으로 하여, 伊太利·獨逸·스페인·日本 등에서 파시즘이 權力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것은 國內에 있어서의 徹底한·彈壓과 民主主義의 否定·他國에 對한 侵略·好戰的 排外主義를 特徵으로 하는 政治體制이며, 第二次 世界大戰의 大原因이 되기도 했다.

또한 오늘날에는 操作이나 管理技術을 最大限으로 驅使한 소위 管理社會的인 새로운 「現代 파시즘」의 問題가 注目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파시즘의 用語는, 共產主義者들이 反共主義者들을 욕하고 攻擊할 때 一律적으로 「파쇼徒黨」이라고 使用함으로써, 自由民主主義까지도 包含된 反共產主義 全體를 묶어서 파시즘이라고 指稱하는 共產主義式 奇異한 解釋도 있다.

#### ※ 나 치 즘

獨逸에서 있었던 「國家社會主義」의 略稱이며 파시즘의 一典型이다.

「히틀러」가 統率하는 「國家社會主義 獨逸勞動黨」은 1929年의 世界 大恐慌으로 인한 社會不安에 편승하여 急速하게 勢力을 伸張하고 權威主義·反猶太主義 등을 내걸고 大衆集合·테러리즘을 繼續 驅使해서 1933년에는 政權을 掌握하여 獨裁體制를 폈다.

<p>全體主義右派 (과시즘·나치즘)</p>	<p>全體主義左派 (共產主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特定民族 또는 種族에 의한 全世界 支配  추구</li> <li>○기존 階級構造를 打破하지 않음</li> <li>○組織概念은 民族엘리트 中心의 黨 概念</li> <li>○指導原理는 「協同의 原理」를 前提</li> <li>○特定民族의 國粹主義</li> <li>○指導者와 黨을 同一視하나 黨이 政府보다 優位가 아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特定階級에 의한 全世界 支配  추구</li> <li>○기존 階級構造打破</li> <li>○組織原理는 階級엘리트 中心의 前衛黨 概念</li> <li>○排他的, 位階的, 專制的, 閉鎖的</li> <li>○兩面的 次元(二重的 構造를 갖고 同時에 遂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際主義의이면서 一國社會主義的</li> <li>• 理想的이면서 戰術的</li> </ul> </li> <li>○黨이 政府보다 優位(黨의 絶對性)</li> </ul>

## ◇ 整 風 運 動

中國共產黨이 고안한 것으로 黨員을 教育하고 黨組織을 整備하고 黨의 氣風을 刷新하는 운동이다. 「批判」과 「自己批判」을 그 方法으로 하며, 1942년에 延安이나 各解放區에서 行해진 것이 最初の 整風運動인 「三風 整頓運動」이고, 1951년부터 1952年 사이에는 「三反·五反運動」이 있었다.

整風運動에서 「整」은 事物이 있어야 할 本然의 狀態에 있게 함을 말하며, 「風」이란 風紀·風潮·作風·氣風 등의 意味를 포함하는 말이다.

따라서 中共에서 「整風 運動」이란 黨員의 氣風·態度·思考方式 등을 있어야 할 本然의 狀態에 있게끔 整頓시키는 것, 즉 黨과 黨員을 思想·組織·活動面에서 共產主義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1964年 「文藝整風」에 이어 「프롤레타리아 文化大革命」 등 대대적인 整風運動이 계속되다가 1983년부터는 3個年計劃으로 새로운 整風運動이 展開되고 있다. 1983年 10月初,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全體會議에서 發表된 「整風運動」指針書에 따르면, 그 基本焦點을 “自由主義 支持者에 대한 攻擊”으로 되어있다.

※ 百花齊放·百家爭鳴

毛澤東은 1956年 藝術의 自由와 學術의 自由를 結合하여 百花齊放 百家爭鳴을 口號로 登場시켰다. 이것은 第1次 5個年計劃을 圓滑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意識構造를 社會主義的으로 改造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련에서의 「스탈린」格下運動의 여과를 意識하면서, 이 口號로 知的 活動의 自由를 잠시 부여하였다.

그러나 建設的인 意見보다는 黨에 대한 批判이 노골화됨에 따라 1957年에 毛澤東은 自己를 批判하는 자들을 右派라고 烙印을 찍고 放鳴(百花齊放 百家爭鳴)運動을 「反右派 鬭爭」으로 逆轉시켜 많은 知識人들을 肅清했다.

(이 運動은 숨겨져 있던 「反動知識人」을 露出시켜 肅清하기 위하여 案出된 毛澤東의 計算된 것이었다.)

※ 「紅」과 「專」

「紅」은 共産黨의 主義 思想과 政治이고, 「專」은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말한다.

「紅」과 「專」중에서 어느 쪽을 優先적으로 重視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958年 이래 論爭과 肅清의 惡循環이 계속되고 있다.

## ◇ 帝國主義論

1916년에 「레닌」이 쓴 “資本主義의 最高의 段階로서의 帝國主義”라는 책으로부터 帝國主義論은 「레닌」의 것으로 取扱되고 있다. (실은 1905년에 英國의 존·홉슨이 쓴 「帝國主義」가 이미 있었다.)

「레닌」은 資本主義를 ①獨占 이전의 資本主義와 ②獨占資本主義로 區分하고, “獨占資本主義가 곧 帝國主義이며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最高의 그리고 最後의 段階”라고 規定하고 그 死滅을 豫言했다. 그리고 “이 死滅은 프롤레타리아 革命에 의해 招來된다. 따라서 帝國主義는 死滅하고 있는 資本主義이며 社會主義로 移行하는 資本主義”라고 斷言했다.

즉 「레닌」의 理論에서 重視한 것은 帝國主義의 經濟的 分析이 아니라 이것을 根據로 導出해 낸 革命理論이다.

「레닌」은 “世界 帝國主義下에서 抑壓·收奪 당하고 있는 勢力으로는 資本主義안의 프롤레타리아와 더불어, 植民地의 被壓迫民族이 있다”고 하여 「마르크스」의 “萬國의 프롤레타리아여 團結하라”는 口號를 “萬國의 프롤레타리아와 被壓迫民族들은 團結하라”고 바꾸었다.

帝國主義論의 核心은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의 法則」에 있다. 「레닌」은 “革命은 먼저 一國 또는 數個國에서 勝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波及할 것이다”라고 主張하면서



“그리하여 帝國主義 戰線의 連鎖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이 戰線은 擊破된다.”고 豫言했다.

※ 그러나 「帝國主義」는 「獨占資本主義段階」 이전에 이미 出現했다.

즉 本來의 帝國主義는 武力征服에 의한 領土의 擴張을 目標로 한 侵略主義를 말하며, 이와 같은 帝國主義는 로마帝國에도 있었고, 封建國家에도 있었다.

또한 「레닌」은 列強資本主義를 帝國主義의 「世界戰線」 또는 「世界的 體制」 등으로, 마치 利害關係의 統一體나 運命共同體인 것처럼 認識했으나, 各國의 資本主義는 相互 依存해 온 면도 있었으나, 오히려 相互 排他하는 競爭關係에 있었고, 各國이 고리(環)로 連結되는 連鎖體를 形成한 일은 없었다.

#### ◇ 第 1 인터내쇼날

1964年 9月 20日 英國 런던에서 設立한 勞動者階級の 最初の 國際組織으로서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指導되었다.

第 1 인터내쇼날의 綱領은 「마르크스」의 革命主義를 露骨化한 것으로서,

① 勞動者階級の 解放은 勞動者 自身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勞動者를 終局的으로 解放하기 위해서는 政治權力을 掌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理論에 根據한 勞動者 組織이 必要하다.

④ 勞動者는 理論面에서나 行動面에서도 國際的으로 提携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出發한 第1 인터내쇼날은 「마르크스」의 소위 「科學的 社會主義」派와 無政府主義를 비롯한 反마르크스主義派間에 熾烈한 思想鬭爭이 展開되었다. 第1 인터내쇼날의 歷史는 分派鬭爭의 歷史라고 할만큼 內部 對立이 심했으며 結局 1876 年에 7次大會를 끝으로 解體되었는데, 가장 큰 事業은 「파리콤문」이다.

#### ※ 「파리콤문」

1871年 3月 18日부터 5月 28日에 이르는 72日동안 佛蘭西 파리에 樹立되었던 革命政權을 말한다.

「파리콤문」은 1870年 7月에 시작되는 普佛戰爭에서 佛蘭西가 連敗하고 나폴레옹三世 自身이 敵軍에 投降함으로써 佛蘭西의 政治的 混亂이 극심해진 가운데 1871年 2月 파리에서 結成된 「國民軍 共和聯盟」이 武裝鬭爭으로 樹立한 政權이었다.

「파리콤문」은 急進的 勢力들이 합하여 「社會主義 共和國」을 志向했으나, ①방대한 行政事務의 處理에서 드러난 失策과

②革命的 意義에 대한 沒自覺, ③프롤레타리아트의 弱體 등으로 結局 三日天下로 끝나고 말았다.

「파리콤문」은 立法權 뿐만 아니라 執行權(行政權)까지도 掌握했으며, 常備軍을 廢止하여 武裝한 人民으로 된 國民軍으로 改編하고, 모든 公務員을 公選으로 選出하여 召喚이 可能한 것으로 하고, 賃金은 勞動者 스스로 抑制할 것을 宣布했었다.

이 「파리콤문」이 成立되었을 때, 第1 인터내쇼날은 全力을 傾注하여 應援했었다. 「파리콤문」이 鎮壓된 直後 第1 인터내쇼날은 「마르크스」가 起草한 總務委員會의 宣言을 發表했다. 이 宣言은 “파리콤문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標本”이라고 했다.

後에 「레닌」은 「파리콤문」을 評價하여 “本質적으로 勞動者階級の 政府이며 프롤레타리아獨裁의 萌芽形態”라고 했다.

#### ◇ 第 2 인터내쇼날

1889년부터 1914년까지 存在했던 勞動者 組織의 國際的 結合이다.

1889年 「엔겔스」의 指導下에 불란서革命 100週年을 記念하여 파리에서 創立大會를 가졌다. 「메이데이」(每年 5月 1日)를 祝賀한다고 하는 決定은 이 大會에서 採擇한 것

이다.

이 第2 인터내쇼날은 第1次 世界大戰이 勃發하면서, 各國의 勞動者가 自國 政府의 帝國主義戰爭에 協力함으로써 崩壞되었다.

第2 인터내쇼날의 行動綱領은

- ① 資本家政黨과의 妥協 反對
- ② 反戰思想 鼓吹
- ③ 「메이데이」 實施
- ④ 植民地 領有 反對決議 등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1912年의 反戰決議에서는

- ① 다가 오는 戰爭은 帝國主義 戰爭이다.
- ② 各國의 프롤레타리아트는 戰爭을 反對하여야 한다.

③ 帝國主義戰爭을 國內戰爭으로 돌려서 革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을 決議했으나, 1914年 1次世界大戰이 일어나자 第2 인터내쇼날의 會員인 各國의 共產主義 또는 社會主義 政黨들은 反戰決議를 비롯한 각종 宣言을 拋棄하고, 自國의 戰爭政策에 協力하고 말았다. 예를 들면 獨逸社會民主黨은 1914年 8月 4日, 10日前에 決議한 反戰聲明을 내던지고 獨逸政府의 戰爭豫算을 통과시켰다. 또한 獨逸 勞動者들에 대해서는 祖國防衛를 위하여 階級鬭爭 아닌 階級平和를 實踐하라고 호소했다. 즉 政府를 相對로 싸울 것이 아니라 祖國의 防衛를 위하여 政府를 돕자고 권고했던 것이다.

## ◇ 從 屬 理 論

從屬理論은 1960年代를 전후해서 라틴아메리카 學者들에 의해서 主導되었다. 從屬理論이 라틴아메리카에서 胎動케 된 특별한 狀況으로서는

① 二次世界大戰 後 「民族解放運動」이 勝利하고 民族資本家 階層이 權力을 掌握함으로써 輸入代替的 工業化政策이 추진되었고,

② 그 推進過程에서 國際的, 國內的으로 所得分配가 불공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失業과 貧困에 시달리고 産業化가 일차적으로 外國資本家에 의해 수행되는 등 社會·經濟的 모순이 累積됨에 따라 그 政策이 失敗로 끝나게 되었고

③ 이 와중에서 軍部가 權力을 掌握하는 등 새로운 軍事主義的 傾向이 대두되었고,

④ 社會主義的 民族解放運動이 재차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1960年代 中半부터 「후랭크」, 「산토스」, 「아민」 등의 學者가 主動이 되어 라틴아메리카 經濟委員會의 理論을 批判하고 補完하는 過程에서, 「마르크스」主義的 從屬理論이 基本틀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요컨대 從屬理論은 어떤 學問的 思潮로서 自然發生된 것이 라기 보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展開된 反帝國主義 民族解放運

動的 實踐過程에서 發生된 하나의 民族主義的 이데올로기인데, 最近에는 그것이 急進的 「마르크스」主義 理論과 結合해 짐으로써 初期의 종속이론에서 크게 離脫되고 있다.

종속이론을 支持하는 學者들 間에도 多樣한 假說들이 展開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는 몇가지 觀點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들은

① 第三世界가 低開發 狀態에 있는 것은 工業化된 資本主義國家의 膨脹과 密接한 관련이 있다고 主張한다. 즉 그것때문에 中心地域에서는 發展이 되고, 周邊地域에서는 低開發의 原因이 되었다는 것이다.

② 中心國과 周邊國間의 관계는, 周邊國들이 그들에게 不利하게 지워진 國際環境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能力이 없기 때문에, 相互依存的이라기 보다는 從屬的일 수 밖에 없다고 主張한다.

③ 低開發國家들은 모두 다른 國家들에 의해서 搾取 당하고 있으며, 오늘날 世界가 當面하고 있는 低開發의 問題도 資本主義的·帝國主義的·植民主義的 搾取의 所産이라고 主張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從屬理論을 構成하는 骨格은 「不平等」·「支配와 從屬」·「搾取」라는 用語들인데, 從來의 概念들이 相互依存·共同協力·比較優位 등의 用語를 쓰는데 반해 從屬理論에서는

- 「相互依存」을 「從屬」으로
- 「共同協力」을 「不平等과 搾取」로
- 「比較優位」를 「不平等交換」 등으로 바꾸어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從屬理論을 分析해 보면,

첫째, 너무 二分法的 變數로 概念化하기 때문에, 모든 國家를 「從屬」 아니면 「非從屬」 또는 「中心」 아니면 「周邊」이라고 區分하고 있다.

둘째, 從屬理論家들은 現存하는 모든 支配와 從屬關係를 問題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發展된 資本主義國家와 低開發된 資本主義國家 간의 關係만을 論議의 對象으로 다루고 있다. (美國과 라틴아메리카 간에도 힘의 不均衡이 있지만 소련과 東歐 등 共產國家 간에도 支配와 從屬의 構造가 있지 않은가)

셋째, 資本主義 體制의 屬性을 搾取關係로만 보기 때문에, 資本主義 體制에서 發見할 수 있는 「調和와 協力」의 要素라든지, 關係當事者 모두에게 利益이 되는 去來에 대해서는 考慮하지 않은 弱點을 가지고 있다.

넷째, 從屬理論家들은 國際關係의 힘(주로 先進國의 役割)은 誇大評價하는 反面에 低開發國 自身の 影響力이나 責任은 過少評價 함으로써, 自身들의 民族史를 제대로 理解하거나 지키지 못한 過誤를 犯하고 있다.

## ◇ 中·蘇 紛爭

中國共產黨 指導部와 소련공산당 指導部 사이에 있었던 國際 共產主義運動의 原則的 問題에 관한 主要한 論爭點은 現代世界의 基本矛盾의 問題, 戰爭과 平和의 問題, 過渡期 問題, 프롤레타리아獨裁問題, 「스탈린」批判에 관한 問題 등이다.

論爭의 發端은 1956年의 소련공산당 第20次 大會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의 論爭은 共產主義 陣營內部에 머무르고 對立 克服을 위한 努力이 繼續되었었다. 그러나 1958年의 「후르시초프」와 毛澤東 會談에 있어서, 「후르시초프」가 中國共產黨의 社會主義 建設 總路線·大躍進·人民公社에 대한 批判을 가하자 이를 계기로 하여 중·소간의 國家的 利害의 對立으로까지 發展하여, 1959年 6월에 소련은 原爆供與에 관한 國防用 新技術協定을 파기했다. 1960年 4月 中國共產黨은 「레닌主義 萬歲」 등의 三個論文을 發表하면서 소련을 批判했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同年 7月 中共의 經濟建設을 援助해 오던 專門家の 일제철수를 통고하여 中共經濟를 大混亂에 빠뜨렸다.

同年 가을 모스크바 81個國 共產黨·勞動者黨會議에서 意見調整이 되어 一時的인 妥協으로서 모스크바聲明이 나왔는데, 중·소 및 中·印國境 問題, 알바니아問題, 部分核武器停止 條約 問題 등을 둘러싼 중·소의 對立點은 深化되어, 드디어 1962年



쿠바위기 이후 중·소 兩指導部는 공공연하게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中國共產黨은 1966年 8月の 第8期 中央委員會 第11次 總會에서 소련 現代修正主義者와의 鬪爭에는 中間의 길은 없다고 철저한 鬪爭을 宣言하였으며 소련을 「社會帝國主義」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

한편 소련共產黨도 同年 12月の 中央委員會 總會에서 「毛澤東과 그 구름」의 「反레닌主義的 大國主義」를 彈劾하여 마침내 兩國은 最少限의 國家關係를 維持할 정도로 되었다.

그후 「후르시초프」와 毛澤東이 없는 중·소간에는 關係正常化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 코 민 테 른

코민테른은 第1次 世界大戰의 勃發과 함께 “帝國主義戰爭 反對의 口號를 拋棄하고, 排外的인 愛國主義에 떨어진” 第2인터내쇼날의 破産을 딛고, “眞正한 革命的인 인터내쇼날리즘을 繼承한다”는 것으로 1919年 3月 「레닌」의 指導下에 모스크바에서 設立되었다.

第2次 大會에서 決定된 21個條項의 嚴格한 加入條件을 充足시키는 宗旨으로 “革命的인 政黨”만으로써 構成되어, 各國에서의 資本主義 打倒, 階級の 廢絶,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實

現, 國際소비에트共和國의 樹立 등을 目的으로 했다.

또한 植民地 人民의 帝國主義로부터의 解放도 그 目的에 包含시켜 廣範한 活動을 展開하다가 1943年 6月에 解散했다.

第3 인터내쇼날은 「共產主義者 인터내쇼날」 또는 「콤인테른」으로 通稱되며, 그 組織 背景은 소련의 소비에트政權의 擁護와 密接한 關係가 있었다.

「레닌」은 1919年 4月에 “第3 인터내쇼날과 그 歷史上の 地位”를 말하면서 “第3 인터내쇼날은 第2 인터내쇼날의 成果를 攝取하고, 그 機會主義的, 社會排外主義的, 부르조아적, 小부르조아적 오점을 除去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實現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1920年 7月에 있었던 2次大會에서 採擇한 規約에 의하면 코민테른은 各黨共產黨의 同盟體는 아니고, 強力한 中央集權制에 依據한 主從關係로서의 嚴格한 規律을 가진 單一의 組織이었다.

各國의 共產黨은 코민테른의 強力한 統制下에 있었고, 러시아 共產黨이 코민테른을 支配하고 있었다.

1939年 9月에 2次世界大戰이 勃發했다. 코민테른은 처음에 “帝國主義戰爭의 即時 停止”를 要求했으나, 戰爭의 擴大에 따라 “파시즘 打倒를 위하여”의 口號를 내걸고 自由民主主義 國家와의 聯合을 實現했다. 戰爭遂行의 途上에서 소련의 聯合 國인 美國·英國 內에서 소련이 조종하는 코민테른 支部가 反

政府鬭爭의 存在로 되어버리는 矛盾과 武器援助의 必要性 등을 감안하여, 1943年 5月 15日에 코민테른은 戰術的으로 解散했다.

### ◇ 코 민 포 립

1947年 9月 폴란드의 首都 바르샤와에서 유럽共產黨情報會議가 열렸다.

이 會議에서는 國際情勢에 관한 宣言 및 “會議에 參加한 各共產黨의 經驗의 交換과 活動의 調整에 관한 決議”를 採擇했다. 이 決議는 各共產黨의 經驗交換을 위한 組織과 必要에 따라 相互同意에 基礎한 活動의 調整을 強調한 것이었다. 이로써 9個國共產黨( 체코·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불가리아·프랑스·유고·이태리·소련)의 情報局 設立이 決定되었고, 1947年 10月 5日에 9個國共產黨들은 同時에 「共產黨 및 勞動者黨 情報局」의 結成을 發表하였다. 이것을 通稱 「코민포름」 이라고 한다.

코민포름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中央集權的 指導機關이 아니라, 다만 經驗交換과 活動調整의 機關이라고 했지만, 「스탈린」의 「티토」에 대한 破門으로 立證된 바와 같이, 事實에 있어서 「코민테른」(第3인터내쇼날)과 같은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中央集權的 指導機關으로 運用하려고 했다.

코민포름의 機能은 「스탈린」의 死亡과 더불어 褪色하게 되었다. 「스탈린」의 死亡은 소련國內만이 아니라 國際共產主義運動 線上에도 重大한 意味를 가져왔다. 「스탈린」體制의 確立過程에서 惹起된 「티토」에 대한 除名處分問題를 解決하지 않고서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統一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1955年 5月 「후르시초프」는 自己 批判하고, 유고에 陳謝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1956年 4月 17日에 코민포름 8個國 共產黨 中央委員會는 코민포름의 解散聲明을 發表했다. 이로써 國際共產黨의 組織은 形式上으로는 存在하지 않게 되었고 다만 世界共產黨大會라는 名目으로 行動統一을 기하려고 했다.

「스탈린」格下 이래, 中·소분쟁의 激化, 各國共產黨의 自主化路線 등의 抬頭로 인하여 國際共產主義運動은 多元化時代의 陣痛을 겪고 있다.

#### ◇ 콜 호 즈

러시아語로 集團經營이라는 의미의 약자이다. 「集團農場」이라고 번역된다. 「슘호즈」와 함께 소련의 二大 農業經營 形態로서, 1979年 現在 「콜호즈」의 수는 26,400 이고 農民數는 1,390 萬名으로 소련 全農土의 23.8%를 經營하고 있다.

「콜호즈」는 土地, 農具, 家蓄, 種子, 農業施設 등의 生産手段

을 共有하고 共同勞動에 의한 生産을 하고, 收益은 一定한 控除를 한 후에 「콜호즈」 각자의 勞動量에 따라 分配한다.

「콜호즈」가 强行되기 시작한 1928年 당시의 대부분의 러시아 農民들은 「콜호즈」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거나 拒否했다. 1929年의 경우 全體 農家口의 4.1%만이 이에 編入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되자 「스탈린」은 強權을 動員하여 編入을 忌避하는 農民들을 強制로 追放하기 시작했다. 그는 “榨取階級으로서의 富農을 抹殺한다”는 명목하에 一時에 그들의 財産을 沒收하고, 反抗하는 자들은 處刑하거나 集團農場으로 強制로 移住시켰다. 이 過程에서 무려 百萬餘世代가 被害를 입었다.

「콜호즈」에 強制編入 시킨 結果, 農民의 離脫現象이 일어나고, 強制穀物徵發에 反抗하여 穀物을 감추거나 훔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스탈린」은 1932年 이후 이들을 死刑으로 응징하는 對應措置를 취했다.

그리하여 1931年에 集團화된 農家數는 全體의 52.7%에 달했으며, 1936년에는 90%, 1940년에는 96.9%에 달했다. 이 집단화 과정에서 무려 千萬名에 이르는 人命이 處刑·餓死·過勞 등으로 犧牲되었다.

#### ※ 新食糧計劃

1982年 5月 소련공산당 中央委員會에서 採擇된 소련의 新

農業政策이다. 1982年을 初年度로 하여 1990年까지의 食糧計劃인바, 過去 4年間の 계속凶年으로 農業不振이 深刻화된 食肉, 감자 등 基本食糧品の 不足을 解決하고, 西方側으로부터의 飼料穀物 依存度를 減少시키는 것이 目標이며 第12次 5個年計劃(1986~1990)에서 總投資의 三分之一을 農業에 投入하는 計劃이다. 그렇게 하면 第12次 5個年計劃 期間에 穀物の 年平均 生産高를 2億 5千萬톤 내지 2億 5千 5百萬톤으로, 食肉을 2千萬톤 내지 2千 50萬톤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련의 農業歷史上 지금까지 穀物生産이 2億톤을 넘어선 것은 불과 3回 밖에 없었다. 그런 뜻에서 이 計劃은 지나친 樂觀으로 보여진다.

#### ◇ 平 和 共 存

「平和共存」은 소련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路線인데, 소련의 「科學的 共產主義 辭典」(1969年 모스크바)에 의하면 “平和共存이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的 階級鬭爭의 한 特殊形態로서 「平和共存」政策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立場(全世界에서 共產主義가 必然적으로 勝利한다는 立場)과는 아무런 矛盾도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平和共存」은 社會主義 國家間에서는 適用되지 않

으며, 또한 이데올로기상의 平和共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 프라하의 봄

체코에서는 스탈린主義者인 「노브트니」의 支配에 대하여, 1960年代에 知識人을 中心으로 批判이 擴大되어, 1968年 1월에 改革派의 「드브체크」가 共產黨 第1書記에 選出되었다. 4月에는 改革派의 「체르니크」가 首相에 就任하고 黨 中央委員會 總會에서는 「行動綱領」을 採擇했다. 거기서는 “共產黨의 指導的 役割은 權力을 獨占하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民衆의 信賴를 얻는 것에 의하여서만 實現할 수 있다”고 하는 劃期的인 發想을 發表했다. 이로 말미암아 檢閱制度가 事實上 廢止되고, 많은 政黨이나 政治團體가 復活하고 議會는 活潑한 論議와 批判의 場으로 되었으며, 經濟改革이 準備되어 「프라하의 봄」이 開花되었다.

이 改革이 自國과 東歐共產諸國에 波及될 것을 우려한 소련은 同年 8月 20日에 20萬의 軍隊로 軍事介入하여 改革派 指導者 全員을 一時 소련으로 連行했다. 체코의 市民은 非暴力 抵抗으로 結束했으나, 1969年 4月에는 「드브체크」가 해임되었다. (「브레즈네프 독트린」 참조)

## ※ 社會帝國主義

소련공산당 指導部가 1968年 8月에 체코침략의 軍事行動을 시작했을 때 中國共產黨은 이에 대하여

“이와 같은 노골적인 武力干涉은 소련배신자 집단의 凶惡한 狹小적 政체를 여지없이 暴露한 것으로서, 소련의 指導部가 이미 社會帝國主義로 된 것이다”라고 비난한 것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 ◇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全世界의 勞動者階級, 被壓迫民族이 共通의 敵에 대하여 團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秩序와 平和를 希求하는 「코스모포리타니즘」이나 「유니버살리즘」하고는 전혀 다르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의 起源은, 1848年의 「共產黨 宣言」의 口號인 “萬國의 프롤레타리아트여 團結하라”이며, “世界各國의 프롤레타리아트의 利害는 共通的이므로, 資本主義 打倒, 社會主義 建設을 目標로 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國際적으로 團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意味의 內容을 가지고 있다.

共產主義에서 말하는 國際主義(인терна쇼날)의 概念은 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特殊한 의미를 가진다. 즉 階級鬭爭을 目的으로 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國際組織이다. 各國의 勞動者團



體가 階級協調 또는 單純한 國際平和만을 追求하는 國際機關을 組織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勞動者들의 國際組織이기는 하지만 階級鬭爭을 目的으로 하는 組織이 아니기 때문에 國際主義(인терна쇼날)로 부를 수 없다는 解釋이다.  
(「第1 인터내쇼날」, 「第2 인터내쇼날」, 「코민테른」참조)

#### ◇ 프롤레타리아 暴力革命

社會主義革命에 관한 「마르크스」主義 理論은 唯物史觀과 더불어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中心思想을 形成하고 있다.

共產主義 階級國家觀에서는 國家를 오직 「支配階級の 道具」로 看做한다.

勞動階級の 해방은 어떻게 해서 可能한가? 이에 대한 對答이 프롤레타리아革命論이다. “革命은 階級鬭爭의 不可避한 結果이며, 革命的 變革없이 새로운 社會가 誕生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가 共產主義社會로 넘어가는 過程에서 被壓迫階級인 프롤레타리아트의 革命은 不可避한 것이며, 누구도 이를 防止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革命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① 「언제」에 관해서 「마르크스」는 生産力의 發達을 提

示한다. 즉 生産力이 生産關係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에 革命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主義社會에서의 革命은,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하여 完全히 成熟하기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② 「어디서」 그러한 革命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는, 가장 先進的인 工業國家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③ 「누가」 일으킬 것인가? 할 때 그것은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이며,

④ 「어떻게」 이러한 革命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現存制度를 暴力으로 顛覆시킨다는 것이다. 즉 共產主義에서 말하는 革命은 流血革命을 뜻한다. (「共產黨 宣言」 참조)

「레닌」도 그의 著書인 「國家와 革命」에서 “共產主義는 現在의 國家機關에 대한 어떠한 改革을 통해서도 實現될 수가 없고, 오직 現存하는 國家機關을 파기함으로써만 達成된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資本主義가 完熟期에 到達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暴力革命에 의해서 崩壞된 先進 資本主義國家는 없다. (뿐만아니라 그러한 革命이 發生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누구에 의하든 暴力革命은 必然的인 것도 아니며 禮讚할만한 것도 아니다. 暴力은 最善의 경우에 있어서도 惡에 불과한 것이며, 暴力革命에 成功한다고 해도 無數한 犧牲과 破壞를 초래한다.

## 共產主義用語解説

---

1984年 2月 8日 印刷

1984年 2月 10日 發行

發行處 國 土 統 一 院  
統 一 研 修 所

---

